

1993

제 27 대

洪善基道知事演說文選集

(92. 9. 18 ~ 93. 3. 4)

忠 清 南 道

1993

제 27 대

# 洪善基道知事演說文選集

(92. 9. 18 ~ 93. 3. 4)



忠 清 南 道









▲ '92. 9. 28 시군정 보고회  
▼ '92. 9. 29 솜씨자랑 대회



▲ '92. 10. 2 제38회 백제문화제 개막식

▼ '92. 10. 2 ≍ ≍ ≍ 치사



▲ '92. 10. 12 농촌진흥원 시험장 방문  
▼ '92. 10. 25 우박피해 현장방문



▲ '92. 10. 31 생활체육 유공자 시상

▼ '92. 11. 6 추곡수매 현장 방문



▲ '92. 11. 24 보령댐 수몰지구 현장대화  
▼ '92. 12. 17 천안농고 축구부 격려



▲ '92. 12. 1 월례조회시 도정유공자 표창

▼ '92. 12. 23 논산 계룡학사 위문



▲ '93. 1. 1 국립묘지 참배  
 ▼ '93. 1. 20 시군특산물 전시회 방문



▲ '93 2. 18 삼시도 발전소 준공  
▼ 도의회 임시회 인사

# 머 리 말

이 책자는 제27대 홍선기 도지사의 재임기간중 연설문을 담고 있습니다.

홍지사께서는 지난 66년 충청남도에서 공직의 첫발을 디딘 이래, 대부분의 기간을 지방행정 발전에 헌신해 오셨기에 취임에 따른 감회와 의미는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짧은 재임기간이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저개발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역발전과 도약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땀흘린 흔적은, 2000년대 충남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전환기적인 정권이양기의 조직운영에 활력을 심어주고 도민화합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신뢰행정 정착에 바쁜걸음 재촉했던 시간이 이 책자속에 빼곡히 박혀있습니다.

이 모두가 도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록이기에 정확한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책자가 21세기의 활기차고 선진된 도정의 씨를 뿌리는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993. 12.

충청남도 공보관실



# 목 차

## '92년 9 월

19일	제27대 홍선기 충청남도지사 취임사 .....	19
23일	제12회 금산인삼제 치사 .....	24
25일	제31회 충청남도 축산진흥대회 격려사 .....	26
28일	우리고장 경제소식 발간 창간사 .....	28
29일	제12회 충남JC특우회 우정의 날 축사 .....	29
30일	제66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식 인사 .....	31
30일	취임인사 서한 .....	34

## '92년 10 월

1일	10월 월례조회 훈시 .....	37
2일	제17회 망향의 동산 합동위령제 추도사 .....	46
2일	제38회 백제문화제 치사 .....	48
5일	자연보호현장선포 제14주년 기념식 치사 .....	51
8일	대전고등학교 동문에 보내는 인사(동문회보 게재) .....	53
9일	제7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결단식 격려사 .....	55
12일	한밭 하나회 초청 오찬인사 .....	57
17일	국제로타리 3680지구 제15년차대회 축사 .....	62
20일	제73회 전국체육대회 감사서한(대구직할시) .....	64

20일	제73회 전국체육대회 감사서한	65
21일	제3회 대전·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격려사	66
25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대회 격려사	68
26일	제73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 치사	72
29일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격려사	75
30일	제1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격려사	78
31일	농기계 보내기 당부서한	80

## '92년 11 월

1일	11월 월례조회 훈시	83
4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연차대회 치사	91
5일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안 공청회 인사	93
6일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대회사	97
6일	제19회 대일비호 대상 시상식	99
6일	제7회 공산교육상 시상식 축하	101
7일	한국타이어 알로이휠 금산공장 준공식 축하	103
7일	남계 조종국선생 작품전 축하의 글	106
11일	대전일보 창간 42주년 축하메세지	108
16일	기독교방송 대전분실 개설1주년 CBS합창단 초청연주회 축하	109
19일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마치고 후원자에 보내는 서한	110
20일	충청남도 4H 경진대회 치사	111
20일	'93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정연설	113
30일	노인복지시책 개발에 관한 연구발표회 격려사	126

## '92년 12 월

1일	12월 월례조회 훈시 .....	131
1일	농기계 보내기 참여 감사서한 .....	137
1일	우박피해 농민돕기 참여 감사서한 .....	138
4일	제36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 식사 .....	139
14일	'93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	142
21일	확대간부회의 훈시 .....	144
23일	평통지역협의회 활동평가회 인사 .....	154
24일	도정발전에 성원해 주신 각계에 보내는 서한 .....	156
26일	공무원 및 그 가족을 위한 '92송년음악회 인사 .....	157
29일	'92 하반기 정년퇴임식 치사 .....	159
30일	대천시 청사 기공식 치사 .....	163
31일	'92 종무식사 .....	165

## '93년 1 월

3일	'93 시무식 신년사 .....	173
4일	'93 신년교례회 인사 .....	178
14일	실국별 업무계획 설명회 훈시 .....	180
19일	태안군 청사 준공식 치사 .....	187
19일	태안군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훈시 .....	189
20일	제39주년 세계자유의 날 행사 격려사 .....	195
27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남지부 제26회 정기총회 인사 .....	198
28일	제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인사 .....	201
28일	제70회 도의회 임시회 '93 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인사 .....	203

## '93년 2월

1일	2월 월례조회 훈시	207
4일	체육회 이사회 인사	212
4일	체육회 대의원 총회 인사	214
6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정기총회 격려사	217
10일	'93 충청남도 택시운동사업조합 정기총회 축사	219
12일	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회장 이·취임식 격려사	225
16일	'93 대간첩대책 지방회의 인사	227
18일	삼시도 내연발전소 준공식 치사	230
22일	칠갑농산공장 준공식 치사	232
23일	확대간부회의시 시도지사 말씀	234
26일	제35회 대전·충남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축사	240
28일	한밭중학교 제18회 동문회보 게재 인사	242

## '93년 3월

2일	3월 월례조회 훈시	247
4일	이임사	255

'92년 9월



1992년 9월 19일

## 신뢰행정 정착

존경하는 200만 고향 도민 여러분!

그리고 1만5천여 공무원 동지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재덕과 경륜이 모자란 제가 도지사의 중책을 맡고, 이곳을 떠난지 11년만에 다시 여러분 곁에 돌아와 이자리에 서고보니 더없이 반갑고 감회가 큼니다.

그러나 최근의 분행했던 일과 관련해서, 200만 도민과 공무원 동지 여러분의 아픈가슴을 생각할때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높은 덕망과 경륜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도정을 이끌어주신 전임 이종국지사님의 사임을 여러분과 함께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중책수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동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실의와 좌절의 늪에서 방황할 수 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200만 도민이 있고, 우리 앞에는 산적한 일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모두 이번의 불행한 일을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 결연한 의지와 새로운

각오로 힘찬 새 출발을 다함께 다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이 아픔을 하루속히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의 신뢰와 공직자의 명예를 지켜 나가면서 도정을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공무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있습니다.

나라와 고장의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충절의 기개와 무한의 저력을 행동으로 실천해온 200만 도민의 높은 기상이 우리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충직한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 여기에 도지사인 본인의 뜨거운 열정이 더해진다면 최근의 상처치유는 물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스스로를 채찍질 하면서, 200만 도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어, 도민의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꿈과 희망이 용솨음치는 역사의 진운기에 살고 있습니다.

크게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통일과 번영의 연대,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라의 모습과 역사의 흐름이 새롭게 전진하고 있는, 실로 「보람과 성취」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착실한 민주발전과 개혁의 시대가 열려졌고 북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리의 국위가 크게 부상되었으며,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통일을 향한 기틀이 하나하나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은 서해안 개발과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 모두의 소망과 의욕이 크고, 풍요로운 미래의 꿈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는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자부해 봅니다.

더욱이 「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 지방행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새로운 도정사를 보람있게 엮어나가나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 지역여건속에 우리 도정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임 이지사께서 추진하던 시책들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어감으로서 행정의 일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마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특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신뢰행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당면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알찬 열매를 맺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입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부터 민주화 시대에 맞는 인식과 발상, 사고와 행태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서 달라진 우리 공직자의 새로운 모습을 도민앞에 보여주고,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실천해야 할 것 입니다.

둘째, 균형발전을 추구하여 성장과 개발의 혜택이 또 그 과실이 지역과 계층에 고루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근간에 이르러, 우리 충남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꿈과 희망의 고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중 수교로 우리 서해안 지역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추구해 가면서, 서해안 개발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보다 활력있게 추진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농업도인 우리 충남의 경우 농업 경제활동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농어촌문제에 대해서도 애정어린 깊은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속에 도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수준은

크게 향상되고, 우리모두가 소망하는 「윤택한 농어촌」 「쾌적한 도시」 「건전한 사회」도 앞당겨 이룩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셋째, 지역의 안정을 바탕으로 200만 도민의 화합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는 일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화합과 신뢰의 바탕위에서만, 번영과 발전이 가능하였음은 지나온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6공화국 국정의 결실기인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 지역여건은 우리에게 「지역안정」과 도민화합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결속과 도민화합은 도정의 시발이 되면서 또한 그 과정이 되고, 아울러 최종적 결과가 된다고 믿습니다.

충남인의 저력과 높은 기상,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속에 건전한 도민의식과 애향심을 바탕으로한, 응집력을 키워 나가야 할 때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탄한 지역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역량을 결집해서 우리 도민에 대한 공약과 약속을 하나하나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진정한 화합」의 꽃을 피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

우리앞에 가로놓인 크고 작은 과제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용기, 그리고 무한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모두 공직생활에 첫발을 들여놓던 시절, 가슴마다 피어 오르던 「고장과 국가에 대한 끝없는 사랑」, 그리고 「충성심」을 다시 일깨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역과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경우에도 갈라설 수 없는 「하나의 동지」라는 사실을 저는 새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한 확인하고자 합니다.

맑은 하늘아래 때로는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기도 하지만, 결국 원래의 맑고

푸른 하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래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도정에 남아있는 아픔의 기억을 하루빨리 떨어버리고, 행정의 역할과 사명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이리할때 도민들은 어떠한 공직자가 진실한 봉사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누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였는지도 분명하게 기억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도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구자」 「도민에 대한 새로운 봉사자」 라는 자세로, 열린 마음과 진취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과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분발과 정진을 간곡히 거듭 당부합니다.

1만 5천여 공무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200만 도민여러분과 1만 5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화평을 기원하면서 취임사에 갈음합니다.

1992년 9월 23일

## 화합의 한마당 잔치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오늘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군민여러분의 한마당 축제인 금산 인삼제가 이처럼 성대히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회 정태영 의원님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여러분, 그리고 내빈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열두번째 맞이하는 금산 인삼제는, 그동안 지역 문화의 발전과, 군민 화합의 구심점이 되어 왔으며, 세계의 영약인 금산인삼의 진가를 널리 알리는, 알찬 문화축제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칠백의사의 순의 400주년을 기리는 제향행사와 더불어, 오늘 행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분연히 일어서서 이 땅을 지켰습니다.

이곳 금산을 비롯한 우리 충남은, 이러한 충절의 정신이 빛나는 자랑스런 고장이며, 고유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면면히 이어온 유서깊은 문화의 고장입니다.

이렇듯 우리 고장의 출중한 절의와 문화적 긍지는, 오늘의 금산 인삼제를 전통있는

문화축제로 만든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외국의 문화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지럽히고, 자칫 민족정서의 깊숙한 곳까지 위협하는 위기감마저 없지 않지만, 우리가 전통문화를 소중히 하고, 이를 더욱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은 자자손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한 지역의 문화수준은 곧 그 지역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될 '93 대전EXPO에서,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세계인들에게 널리 선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역량을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문화란 우리의 오랜 전통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길을 걷는것, 버스를 타는일, 그리고 단추하나 꿰는 사소한 것까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숨어서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금산은 EXPO 개최의 배후지역으로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느끼고 체험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축제가, 우리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조명되는 가운데 우리의 문화수준을 한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고, '93 대전EXPO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고장에서 있었던 불행한 일과 관련해서, 우리 충남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다시 찾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대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거듭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행사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금산인삼제 집행위원회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과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9월 25일

## 축산업도 경쟁력을 높일 때

오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서른한번째 충청남도 축산진흥 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을 지키고 맘흘려 일하고 계신 양축농가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축산업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의 주소득원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업은 사육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축산물 가격의 등락이 심하여 축산경영이 불안한데다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까지 가중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농촌의 새로운 주소득원으로 축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시책이 단기적으로는 축산농가 여러분에게 당장 눈에 들어오고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축산진흥 시책을 추진하고 양축농가 모두의 정성과 노력이 뒤따른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대내외적인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므로써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양축기반 구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때 일수록 눈앞의 작은 결과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가축을 출품하여 수상하신 양축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정성껏 가축을 길러 출품하신 축산농가 여러분들께도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축산 진흥대회 준비에 애써주신 하만용 축협도지회장님과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9월 28일

## 지역경제 활력의 침병

해빙의 시대에 접어든 최근 세계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역량축적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속에 만만치 않은 시련과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경제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스스로의 역할이 커진만큼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고장 경제소식」은 이렇듯 벽찬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침병이 되고자 창간되었습니다.

「우리고장 경제소식」은 지역경제의 실상과 정보를 지역주민, 상공인, 공무원들에게 제공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특히 우리고장의 대중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민들의 사랑받는 정보지가 될 수 있도록 각계의 따끔한 질책과 애정어린 성원을 바라면서, 창간준비에 힘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1992년 9월 29일

## 우정이란 성장이 느린 식물

JC특우회 가족 여러분,

하늘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 고장 JC특우회 가족의 우정과 보람도 푸른 하늘 만큼이나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JC특우회 가족 여러분이 남겨놓은 사랑과 봉사의 흔적은, 우리 지역에 늘 소망스럽고 신선한 기풍이 되어 왔으며, 이는 곧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미래에 더 큰 기대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들 스스로 의지를 불태워 왔던 「조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라는 JC 슬로건은, 우리가 이만큼 눈부시게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던 정신적인 힘이 되어 왔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JC특우회를 통하여 그 불을 다시 지피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JC특우회원 여러분,

최근 한·중 수교로 우리 충남은 그 어느때 보다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큰 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우리 스스로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정이란 성장이 느린 식물과 같다」고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역의 발전도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의 진정한 의미도,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변함없는 봉사의 의지를 다져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충남 JC특우회 발족이래 두번째로 갖는 뜻깊은 행사를 계기로 여러분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지역사회의 신선한 바람이 우리 충남 JC특우회에서부터 우러나오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JC특우회 가족의 건승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9월 30일

## 화합 도정을 위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재덕과 경험이 부족한 제가 도지사의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과 사명의 막중함을 절감합니다.

먼저, 최근의 불행한 일과 관련해서, 200만 도민과 의원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부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200만 도민의 대표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이곳을 떠나있으면서도, 제 공직생활의 뿌리를 둔 충남도정에 대해서 늘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의원님들의 수범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늘 자랑스러운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 도정의 책임자로 부임을 하여 제자신 늘 소중히 해왔던 고향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새삼 확인하면서, 특히 무엇보다 먼저 시급히 이루어나가야 할 일이 도민 화합과 신뢰기반의 구축임을 생각할 때, 저 자신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자랑스런 200만 도민의 충절의 기개와 높은 기상이 충만되어 있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산하 공무원의 투철한 봉사정신 그리고 제 자신의 뜨거운 열정이 더해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진정한 봉사자」가 되어 도민의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보람과 성취」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착실한 민주 발전과 북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세계속의 한국」으로 국위가 크게 부상되었으며, 우리 고장은 서해안 개발과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풍요로운 미래의 꿈을 하나 하나 실현해 나가는 「도약의 연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 지역 여건속에서 도정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임지사께서 추진하던 시책들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어감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마는, 다음 몇가지 사항에 특히 역점을 두어 도정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첫째로, 민주화 시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인식과 발상, 사고와 행태의 대전환속에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 변화된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상식과 순리에 의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통해서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속에, 성장과 발전의 혜택이 지역과 각 계층에 골고루 배분되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 지역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역량을 결집하여 믿음이 가득찬 「진정한 화합」의 도정을 펴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여론과 의회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내년도 도정 방향을 설정하면서 관련 시책들을 하나 하나 새롭게 강구하고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이양을 앞둔 시기에, 사회 분위기의 이완과 함께, 행정누수 현상이며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기강 확립과 결속으로 도민에 대한 약속을 하나 하나 착실히 매듭지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평소 의회와 집행부는 오늘의 도정을 함께 이끌고 내일의 도정을 같이 걱정하고 설계하는, 공동의 책임을 진 소중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조화와 협력의 공동운명체라는 기본 인식속에, 도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 협조하고 성원하며 화합과 신뢰를 다져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기울여 성숙된 지방자치문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어서, 지난 8월말 우리 도 서해안 지역에 발생한 수해 상황과 복구 계획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동절기 이전에 원상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거듭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9월 30일

## 고향발전에 헌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간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시기에 고향 도정의 중책을 맡고 지난 9월 19일 부임하였습니다.

최근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불행한 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늘 소중하게 여겨온 고향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긍지로 도민 한분한분의 뜻을 헤아리고 받들어서, 진정으로 「신뢰받는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고장의 명예와 긍지를 지켜가면서 화합과 안정을 튼튼히 다져 나가는 가운데, 고향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전직할시장과 신용관리기금 이사장 재직중에 보살펴 주신 고마움, 그리고 이번에 보내주신 축하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일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찾아뵙기에 앞서 우선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92년 10월



1992년 10월 1일

## 신뢰회복으로 활기찬 도정수행

그간 맡은바 소임을 충직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공로가 인정되어 오늘 표창을 받은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이임하는 지사와, 본인의 영접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등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을 누수없이 성의껏 준비해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1년만에 다시 이자리에 돌아와, 여러분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바로 이 연단 이 자리가 제가 27세의 젊은 나이로 당시의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교육을 시켰던 자리이며, 그당시 저와 같이 젊음을 불살랐던 많은 동지 여러분들의 주름진 얼굴, 반백이된 모습을 보고, 깊은 감회에 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얼굴에 진 주름, 흰머리는 바로 우리의 도정사를 찬란하게 이룩한 노력과 고통의 자국이라고 생각할때, 다시 한번 지난 30년간 온갖 정열을 기울였던 기억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제 머리를 스쳐갑니다.

우리 다함께, 개발의 연대에 쌓아온 도정의 과정과 역사가 어떠한 어려움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을 낳게 되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자취를 돌

아보면서,

6공화국 들어서 새롭게 전개된 민주발전의 시대, 민주화합의 시대, 민족통일의 시대, 민족자존의 시대,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들이 수행될 수 있을만큼 우리의 정치·사회·행정여건과 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을 여러분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당시 행정의 최고가치는 빈곤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절실한 행정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혹 그 방법과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권을 제한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도민들은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왜 참았겠느냐?

굶주린 배, 집없는 설움, 못입는 설움 때문에 자기의 보장된 천부적인 생존권과 기본권을 제한 받아가면서 우리 행정의 권위적이고, 경직적인 환경의 패턴을 이해하고 수용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환경과 6공화국 초기부터 민주화, 민주발전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인들이 많은 갈등과 고뇌를 겪으면서 쌓아 올렸던, 6공화국의 여러가지 업적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됩니다.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과제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국후 오늘이 이르기까지 계속 공명선거, 민주행정, 봉사행정을 강조하고 외쳤지만 실질적인 민주발전이나, 봉사행정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점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통치자를 모시고 이 새로운 정치·사회·행정여건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많은 노력과 정열을 쏟은 보람으로 이제는 민주주의가 거의 성취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들이 도지사, 군수를 상대로 해서 바닥에 깔려있는 도민들의 소리를 거침없이 집행부에 제기하고, 우리들의 업무추진 자세와 방법, 기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신랄하게 추궁하는 모습등을 의회를 통해서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된 민주주의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민주화된 사회, 민주행정을 부르짖는 공무원들의 구호나 언동이, 말에 비해서 현실과 유리된 느낌을 아직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해 봅시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전례없이 집권당의 총재직을 사임하신, 「9. 18 결단」의 배경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음미를 해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자세와 책임과 사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치로부터 우리 행정을 보호하자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때마다, 정권이 바뀌는 과도기 길목에서 늘 충직하게 열심히 봉사해온 우리 공직자들이 선량한 유권자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더러는 불행한 일까지 있었던 아픈기억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조치는 선거때마다 감수해야 했던,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이탈시켜 정권교체기의 우리 행정과 국정에 누수현상과 공백을 차단하고 국정본연의 궤도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영단인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로 인해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또 비생산적인 격론들이 있었지만, 이번의 결단으로해서 합리적인 논의와 건전한 정당정치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하는 점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두번째는 최근에 대통령께서 유엔을 방문하셔서 21세기 태평양시대 동북아시아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사명을 강력히 말씀하시고, 또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죽의 장막」으로 가리워지고 또 6.25를 통해서 적대관계였던 중국과 공식수교를 맺음으로서 이제 평양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의미있게 관찰하면서, 이시대 이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작금 우발적인 사건사고 하나하나에도, 마치 정권교체기 공무원들의 행정권 누

수현상으로 보고 질타를 해오고 있는 것이 언론계의 시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6공화국에서 여러가지 쌓아 왔고, 계획했던 일들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국민들에 대한 모든 약속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온갖 정열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여러분에게 당부코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불행했던 일들과 관련 우리들의 의지가 크게 침체되고, 아울러 도정이 활력을 잃고 표류하는 듯한 인상을 도민에게 주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나간 일이며, 우리에게 할일이 너무 많고 도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산적한 일과 엄청난 도민의 기대를 10월중에 처리한다고 하는 굳은 결의와 각오로 우리 스스로를 재충전하며, 조직에 활력을 주입하고, 우리의 추진태세에 박차를 가하면서, 흐트러진 도정의 대열을 굳건히 다지는데, 본인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충남도 전 공무원이 다같이 협력을 하고 결연한 의지로 새 출발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도민들에게 이번 불행했던 일을 전기로해서, 심기일전 변화된 우리 공무원의 충직한 봉사자세가 도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조직에 갈등과 마찰이 있을때 도민들은 우리를 불신할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고압적이며 진실하지 못할때, 국민앞에 군림하려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때, 도민들은 도정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떨어진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달 19일 취임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믿음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부진한 부분은 그 원인을 추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도 계획했던 크고

작은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누수없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이 10월 한달을 소중하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나 도가 도민에게 약속했던 크고 작은 약속사업들은 연내 마무리해서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확신을 도민에게 심어주고, 금년에 계획하고 약속했던 모든사업들이 소담스런 결실로 도민앞에 제시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채찍을 가할 때라 생각합니다.

12년 연속풍년을 맞아 이 10월 한달, 막바지 농사관리를 어느정도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른 봄 한기를 무릅쓰고, 비닐하우스에 묘판을 만들며 일했던 농민의 그 아픔이 알찬 결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몇년도인가 막바지 결실기에 농사관리를 잘못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일이 있었고, 태풍으로 인해 서산·당진지방에서는 벼단이 바다로 떠내려가는 아픔을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수확기 농사관리와 함께 이제 추수기를 맞이해서 농촌의 일손이 크게 부족합니다.

임금을 조사해 보니 남자 3만원, 여자 2만5천원을 주어도 일손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농업은 생력화 농업에 우리 정책의 비중을 둘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를 추진하려면, 농기계를 확대 공급하는 일일 것입니다.

금년 봄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기계를 농촌으로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기계 보내기 운동」이 하반기에도 계속 확산되어, 농민들에 대한 우리 도시민들과 기업인들의 애정어린 배려가 피부로 직접 느껴질 수 있도록, 농민들의 가슴을 선무해 주는 일등은 농촌에 농기계 보내기 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도민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또 농민들의 허탈한 심정을 위로해

주는 이러한 일에 모든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펴주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로 인하여 서해안 지역은 1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제 의회에서 보고한대로 전 기술직 공무원이 합동작업을 해서라도 하루속히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설계 발주 준비를 마치고, 동절기전에 집을 잃은 사람에게는 입주를 보장하고 또 무너진 다리, 부서진 하천에 대해서는 연내 복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10월은 개천절이 있는 날이고 개국한 달이며, 5천년의 역사가 있게끔한 10월 상달이 있어, 10월은 문화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각종 문화행사가 중앙과 지방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문화적인 정서를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고, 또 일자체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일부사람들이 볼때 모든 공직자들은 문화적인 정서가 메마른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시회에 가서 한쪽의 그림을 보고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메마른 정서, 한수의 시를 읽고도 시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딘 마음, 저 자신부터 그러했습니다.

10월 한달, 이 문화의 달을 통해서 시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전시회도 보고, 책도 읽고하여 이 한달만이라도 우리의 고갈되고 모자란 문화적인 정서를 채우는데 다같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각 시·군에서 열리는 문화적인 행사가 단순한 연례행사로 되어선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옛것을 찾고, 또 옛것에다가 오늘의 한국문화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차원의 전통과 특징이 있는 한국문화로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문화제를 해마다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상보면 전과 지금이나 비슷한 내용들이고, 주최도 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경직된 행사가 되고마는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시·군의 문화제를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민간이 주체가되어 옛것을

이어 나가고, 잊혀진 것을 찾아서 오늘에 선양하고 내일의 우리 향토문화를 조명해 보는 이런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문화제의 운영을 쇄신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도를 보셨지만, 며칠전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부여의 호상놀이가 국무총리상을 차지함으로써, 연 3년동안 문화도로서의 사명과 긍지를 이어왔습니다.

그전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황도의 풍어놀이, 은산 별신제등이 과거 대통령상을 땀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도에 비해 우리 충청남도가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이렇게 상위입상 경험이 많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충청남도가 전통문화의 고장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찾고 또 밝혀보면 선인들의 잊혀져가는 문화의 흔적과 민족의 유적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문화의 달에 우리는 내년도, 또 그 이후의 문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 충절의 고장, 문화의 도로 상징되고 있는 우리 충청도민의 문화적인 긍지를 높여주는 일에 우리는 심혈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은 행락의 계절입니다.

단풍이 들고 날씨가 쾌청하여 등산·여행·운동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연중 가장 좋은 달입니다.

이런 달에 여가가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계·과·국 단위 또는 가족·이웃과 함께 하루 이틀 자연속에서 자기를 되돌아 보고, 조직을 생각하고 자기 직장을 생각하는 이런 모임을 갖도록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때를 이용해서 자연에 접하여 우리의 무디어진 정서를 기름지게 살찌우는 계기로 삼는 것도 한번 시도해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달에는 10월 10일부터 대구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만, 대전시가 충남

도로부터 분리된 이후 우리의 체전성적은 늘 하위권이라고 듣고 있으나, 우리는 갑년 제60회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한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또 레저문화가 급격히 확산 보급됨에 따라, 힘이 들고 고생스러운 엘리트 체육을 모두가 기피하고 있어,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기르고 훈련시키는 일이 그렇게 용이한 일만은 아닙니다.

과거 올림픽에서 늘 상위권이던 일본이 우리보다 성적이 낮은 이유도, 역시 어려운 것은 안하려고 하는 3D현상이 근로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권투·육상선수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극기의 시간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까?

이와같은 가운데 체전선수를 발굴·육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며 여기에는 우리의 행정적인 집요한 노력과, 지원이 뒤따라야만 됩니다.

이미 1,200여명의 선수가 분야별로 선발되어 각고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만, 얼마남지 않은 10여일동안 체력과 기량관리를 잘해서 1년내내 훈련한 보람이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체육회 및 각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이들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상처받은 우리 공직자들의 자존심, 아픈 상처, 훼손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함으로써, 우리가 소망하는 이상적이고 윤택한 농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보존되고, 교통이 잘 소통되며 질서가 확립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농촌이 기름지고 도시가 쾌적하고 그 바탕위에 도민의 정서가 건전하고 화합이 된다면 그게 바로 지상의 낙원이며, 행정의 유토피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겠으며, 이러한 도정의 과제를 늘 염두에 두면서 10월 한달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되며, 만약 헛되이 보내면 만회할 길과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일들로 해서 다소 무디어진 도정의 추진력을 여러분들이 다듬고 충전하여 조직의 인화를 다져 나가면서, 활력을 찾는 일에 우리모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도록 합시다.

1992년 10월 2일

## 통일의 선물을 영전앞에

오늘 우리는 열일곱번째 망향의 동산 합동 위령제를 맞이하여, 여기 망향의 동산에 잠들고 계신 영령들의 영전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먼저 이역만리 하늘에서 조국산하를 그리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해외동포와 이곳에 모셔진 망향의 영령들께, 삼가 옷깃을 여미고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고 곳곳이 살아가시는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독립한지도 어언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나라잃은 설움속에 울분을 삼키고, 이민족의 탄압에 치를 떨어야 했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찌든 가난 뿐이었고,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전쟁까지 겹쳐서, 국토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었습니다.

영령들의 희생위에 피어난, 이땅의 자유와 번영의 가치는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0년 이전에 선진국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며 싸웠던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있고 잘사는 나라가 된것은, 다시는 이땅에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영령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망향의 영령들이시여!

옛그제 우리는 백발이 성성한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 귀국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땅의 역사와 이산의 아픔을 다시금 되새겨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일이 있다면 통일의 선물을 영령들의 영전앞에 바치는 일입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떠나신 자리를 지키며 이어가는 유가족들 굽어 살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사랑을 주셨던 사람들, 여기 모두 모여서, 옷깃 다시 여미고 머리숙여 향을 피워 올립니다.

따뜻한 조국의 품안에서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1992년 10월 2일

## 한차원 더 높은 문화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의회 개회중임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이대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여러분,

오늘 사비백제의 원대한 꿈과 찬연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곳 부여에서, 서른여덟번째 맞이하는 백제문화제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우리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충심으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는 한 시대의 풍속과 생활, 그리고 사상을 조명하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38년전 이 고장의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처음으로 조출한 제단을 마련하고 향불을 피웠던 이 제전이, 백제문화 진흥의 싹을 틔우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

그 지극한 정성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이제는 지역 향토축제에서 오늘과 같은 민족의 문화제로 타오르게 되는데 대하여, 우리는 뿌듯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년전, 이땅의 백제인들은 그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동방의 역사를 주도하는 큰 획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백제문화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쩌면 백제의 옛터에 사는 우리가, 백제를 사랑하고 그 영욕어린 역사를 배우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백제문화가 서해안 한쪽에서 잠시 일어섰다가 사라져 버린, 잃어버린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백제문화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국내외 학자들이 백제문화의 새로운 조명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고대 동양사를 주도하고 해양문화의 모태 역할을 했던 백제문화의 실체는 앞으로 새로운 사실과 함께,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비쳐지게 되기를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충청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도 이러한 우리의 의지요,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의 긍지와 문화적 자존심을 걸고, 백제문화권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이미 도민 모두의 소망이 되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으로 다가온 EXPO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백제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선양하는데 도민모두가 참여하고 정성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문화제 행사가 전문가의 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재현에 힘을 기울인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늘의 축제는 예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한마당 잔치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역의 화합과 안정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의 발전도 새로운 문화의 창달도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한마음으로 뭉치고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50) 제38회 백제문화제 치사

---

최근 우리 고장에서 있었던 불행한 일로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있었다면, 오늘의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늘의 축제가 충남인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고, 다시 활기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도민 대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사준비에 힘써주신 부여군지역 사회인사와 참여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거듭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고장의 문화를 더욱 소중히 가꾸고 지역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드리면서, 치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0월 5일

## 자연보호는 내 가정에서 부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순환도 어쩔수 없이 자연의 섭리에 의하여 어김없이 바뀌는 것인가 봅니다.  
모든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가을입니다.

날씨도 이렇게 좋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자연보호 기념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따른다는 것은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이고, 자연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것은 서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숭배사상이 자연스럽게 짝이 텃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 우리는 잊어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연이 크게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찌기 자연보호현장이 선포되었고, 오늘이 바로 그 14주년이되는 날 입니다.

당시 그때와 비교해 보면, 자연의 파괴와 훼손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관심은 매우 커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속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피서철이나 행락철이 되면 우리나라 관광지는 온통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직접 목격하셨을 겁니다.

자연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받는 이상 만큼 우리 인간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환경파괴로 인하여 언젠가는 재앙을 면하기가 어려운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 절실한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6월 5일 환경보존에 대한 국가선언을 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집에서 쓰는 냉장고, 버리는 쓰레기등 환경 오염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즉, 자연보호는 이렇게 산에 와서 쓰레기를 줍는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 가정에서 부터 시작되고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지키는것, 이것은 곧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자연에 대한 사랑, 자연보전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 폭넓게 퍼져 나가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세에 까지 영원히 오염 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해 주신 각 기관·단체 임직원 및 주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기념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0월 8일

## 명문의 자부심으로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화향기 속에 가을이 깊어갑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지난 9월 19일자로 고향으로 돌아와 충남도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늘 소중히 했던 고향에 대한 애정과 긍지로 이 고장에 고향을 두신 선·후배, 동료, 여러 어르신들의 뜻을 헤아려, 고향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건 동문들께서 보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마음든든하고 고마운 생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에게는 회귀본능이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산란기가 되면 다시 찾아오는 연어와 조기떼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야..., 어떻게 보면 고향을 그리워 하고, 학창시절의 선생님, 친구들, 교정의 나무 한그루까지 정겨워지는 것도 다 그러한 연유일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더구나 우리고장 최고의 명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나라와

(54) 대전고등학교 동문에 보내는 인사(동문회보 게재)

---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동문들의 활약은 정말 큰 자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선배제현을 비롯한 동문들의 끊임없는 자아실현과 모교발전을 위한 땀의 결정이요, 보람입니다.

그 자산위에서 우리 다음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발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것은 오늘에 사는 동문 모두의 너무나도 당연한 책임이요, 도리가 될 것입니다.

최근 이영규 회장께서 동창회관 건립을 위하여 1억원을 희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동문들의 지혜와 정성이 모아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는, 영원한 우정의 전당이 될 동창회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보람된 내일의 복된 터전을 가꾸고자 하는 우리 충남도정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 제73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결단식 격려사

1992년 10월 9일

## 명예와 자존심의 체전

친애하는 선수와 임원여러분,

자리를 함께해주신 체육계 인사와 내빈여러분, 그리고 200만 도민여러분,

오늘 우리 충남의 명예와 희망을 안고 제73회 전국체전 출전의 장도에 오르는 우리 선수들의 늠름한 모습에 박수와 갈채를 보내면서, 우리 200만 도민과 더불어 그동안 열심히 훈련에 땀흘려 온 선수와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는 너나없이 모두가 열광하며 가슴뿌듯했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우리 충남체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비록 크지 않은 도세를 갖고 있지만 충남체육은 우리나라 스포츠를 빛낸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고 그 기반위에서, 한국체육발전의 견인차 역이 되어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89년 대전직할시의 분리로 약해진 기반위에 안팎의 세찬 도전을 받아 왔지만, 체육인 여러분의 정성어린 노력과 각계의 성원과 도민의 정성이 모여져서, 이제 충남체육은 그 도약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임원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연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동안 땀흘려 쏟아온 정성과 각고의 노력이 우리 도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도민의 명예에 상처를 입힌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전국체전이 우리 도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고, 다시 희망찬 내일을 향해 줄달음 칠 수 있는 도약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갈고 닦은 여러분의 기량이 헛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힘써서, 반드시 큰 결실과 보람을 안고 자랑스럽게 개선해 주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선수단 여러분! 체육인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장도를 축하해 주시는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환영의 자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선수단 여러분의 필승을 거듭 기원하고 아울러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격려의 말을 맺고자 합니다.

1992년 10월 12일

##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민주주의

먼저 오늘 영예로운 한발 하나회 회원으로 가입을 허락해 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릴것은 제가 지난 4월 22일 이 고장을 떠나면서, 늘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저 자신을 편달해 주시던 우리 한발 하나회 회원 여러분에게 일일이 이임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홀연히 떠났던 결례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직인의 입장에서 진퇴가 중요한 것인데, 신임시장 부임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앞에 가로질러 다니는 것이 결례가 될것같고, 또 한가지는 제자신 고향이 여기다보니까 이후에라도 종종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임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떠난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전시장직을 떠난후 약 5개월만에 다시 고향 도백의 중책을 맡고 부임을 했습니다만, 제 자신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충남도청에서 첫 출발을 할때 나도 언젠가는 도정의 정상에서 행정적인 뜻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것이 30년 공직생활의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저로서 감회가 없을 수 없고, 또 기쁨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만, 당시의 분위기가 제 감회어린 뜻을 말로, 행동으로 표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전임지사와는 같이 내무행정의 선후배로서 이 지역을 위해서 4개월간을 같이 일을 했던 처지고, 그 분이 안타깝게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후임자로 오는 저의 감회는 착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충청남도민들께 상처를 주고, 또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일부지역의 불행한 일로 몇몇하게 제 감정을 표출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침체의 늪에서, 우울한 생각에서 언제까지나 머무를 수 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지난번에 있었던 일부지역의 불행한 일들을 일대 전기로 활용을 해서, 다시는 우리 충청지역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고, 전 공직자가 심기일전해서 떨어진 충청인의 명예를 다시 선양하는데 전 행정력을 모아야 할때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저는 도백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금의 정치, 사회경제적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고, 특히 지도층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에 사는 우리 지도층의 역할과 사명이 어떠한지 되느냐 하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를 통해서 그 어느때도, 어떤 분들도 공명선거를 강조했고, 또 공정한 선거 관리를 강조 했지만, 단 한번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큼의 공명선거가 이루어 지지 못했던 아픈 헌정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통령께서 9월 18일날 자기가 만든 당, 자기가 창당한 당을 떠나는 입장, 그 고뇌를 역력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당직을 떠나고 자기가 합당을 하고 창당한 당을 떠날때의 정치인으로서의 그 고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그점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배경을 우리 지도층 모두는 이해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이 시대의 3가지 시대적인 과제, 민주발전의 과제, 균형 화합의 과제, 또 민족통합의 과제라고 하는 3가지 우리세대들이 새겨야 할 과제중에서, 우리는 지난 5년동안 열심히 인내해 가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의 틀을 닦아놓았다고 누구든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으리라 봅니다.

또 균형발전의 과제, 누구나 찬양을 합니다만 이제 우리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소위 이 나라의 가난을 퇴치했던 개발의 연대를 살아오면서 지역간의 개발의 편차, 이로인한 동서간의 깊은 감정의 골, 또 계층간의 위화감, 상대적인 소외감과 빈곤감, 이런것들이 하나의 갈등으로 표출되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슬기롭게 넘기기도 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러한 인고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의 과실을 성공시키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역사의 교훈을 터득한 시기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볼때 마지막 과제, 즉 민족통합의 과제 바로 통일인데 우리가 6공 들어서서 북방외교의 성공, UN의 가입 이런것들이 북으로 가는 길을 열기위한 것이었는데, 최근에 우리와 대적관계에 있었던 중국과도 활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과 대화를 트기위한, 평양으로 가기위한 큰 길을, 이제 열어 놓았다고 본다면, 6공화국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세가지 시대적인 소명과 과제를 성취시키면서, 큰 주춧돌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9. 28 결단, 이것은 이제 우리도 다음정부, 새 정부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정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방후 반세기동안 이룩해 놓았던 모든 업적을 하나로 응축시켜서 이제는 한단계 높은 선진국으로 진입시켜야 할 소명을 안고 출범하는 정부가 바로

새 정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역사적인 사명을 안고 출범하는 새 정부는 가장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전체 국민들로 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정통성을 인정받는 정부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서는 그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행정학 대가도 계십니다만, 우리는 그 이론적인 것을 떠나서, 먼저 민주주의는 그 절차와 과정수단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대선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과정이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공명하고 정당한 분위기속에서, 후보들이 자유경선을 통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태어난 정부, 관권이 개입되지 않고, 행정력이 작용되지 않고, 완전한 자유분위기가 보장된 가운데 있어서의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정부만이 국민의 지지와 정통성이 확보된 정부다, 이렇게 얘기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려진 결단이 9. 28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고향의 도정책임자로 다시 내려온데 대해서 저는 어깨가 매우 무겁고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대전을 떠나서 충남입니다만, 대전의 뿌리가 충남이고, 충남의 뿌리가 대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을 빼놓은 충남권의 발전을 생각할 수 없고, 또 충남을 제외해 놓고 대전권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지역의 기능입니다.

우리 충청권 하면, 대전이 중심이 되어서 충북과 충남이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문화권, 역사적인 배경과 언어문화권을 같이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려야 뭉수 없는 지역기능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고장의 세지역 중에서, 한 지역을 제가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 충북지사와 같이 협조해 가면서, 앞으로 21세기, 즉 변영의 연대, 통일의 연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21세기를 준비하는 그런 한 기간의 책임자로서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열심히 일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륜도 모자라고, 도정을 한동안 떠났다 왔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생소합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고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개인적인 우정과 함께, 시장으로 있을때 저를 도와주셨던 그 충정을 다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일을 하는데 큰 원군을 얻은 그런 심정으로 제 행정적인 의지를 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우기 오늘 우리 대전시에 각계 각층의 지도층을 대표하시는 한밭 하나회 회원님 여러분과 같이 동참해서 지역문제를 걱정하고 시대적인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회원의 한사람으로 저를 영입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 자리는 제가 영예롭게 가입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소찬을 마련하였습니다.

즐거이 드셔 주시면서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나 또 공사간에 저에게 편달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을 할애하셔서 제게 많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92년 10월 17일

## 봉사의 가치

존경하는 신용균 R.I회장 대리 내외분,

그리고 강은주 총재님을 비롯한 충절의 고장 로타리안 가족 여러분!

높은 하늘, 풍요와 여유가 엄치는 넉넉한 계절에 열다섯번째 맞이하는 국제로타리 3680지구의 연차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5년동안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보람된 봉사활동에 힘써 오신 로타리안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중 가장 값진 봉사를 실천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이웃을 돕고 살며, 이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실천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의 기회는 여유가 있는 시간으로 선택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어려운 때일수록, 또 어려운 여건속에서 실천하는 봉사는 더욱 값지고 보람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로타리안 가족 여러분의 봉사활동이야말로, 점점 각박해 가고 있는 이 사회를 밝게 비치는 등불이 되고, 내일의 복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청량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로타리의 생명이 봉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충청인이 거는 기대 또한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우리 고장에는 서해안 개발과 EXPO가 개최되는 소망스러운 여건속에, 우리의 꿈과 희망이 부풀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가 활발해 질 수록, 이러한 우리 고장의 발전은 가속화 될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소망 또한 가까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모쪼록 회원 여러분의 친목과 우정을 통한 오늘의 연차대회가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내는 신선한 물줄기가 되고, 또 로타리안 가족 여러분의 봉사에 대한 다짐이 우리 도정발전에도 믿음직한 반력자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강은주 총재께서 이끌어 가시는 국제로타리 3680지구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지구 연차대회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는 것으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0월 20일

## 우정과 화합의 체전으로 기억

그윽한 국화 향기속에 가을이 깊어갑니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대구직할시 일원에서 펼쳐진 제73회 전국체육대회는 그 어느 체전보다도 질서와 화합의 문화체전으로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대회 기간중 대구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충남선수단을 환영해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족의 한마음 잔치를 우정과 화합의 성공적 축제로 이끌었던 대구직할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늘 행운이 깃들고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살펴주신 정성과 우정,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992년 10월 20일

##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

국화 향기 그윽한 가을에 하시는 모든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번 대구시에서 개최된 제7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지난해 보다 한단계 더 높은 기량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고향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선전분투 할 수 있도록 살피주시고 뒷받침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서면으로 그 고마운 뜻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체전은 우리 선수들이나 도민 모두에게 충남체육의 내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체육뿐만이 아닌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200만 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 정성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충남체육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보람찬 내일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도정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온정어린 격려와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내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1992년 10월 21일

## 우정과 사랑이 넘치는 잔치

오늘 장애인 가족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제3회 대전·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끈끑하게 내일의 꿈을 개척해 가는 우리고장 장애인 가족여러분에게 200만 도민 모두의 위로와 성원의 뜻을 보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모든이들의 가슴마다에는 한결같은 소망과 행복의 꿈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같은 미래의 꿈과 행복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내고 희생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체육행사는 장애인 가족여러분의 이러한 꿈과 삶의 의지를 보여 주는데 그 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여러분,

국민소득의 증가로 국민의 복지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정책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장애인 복지를 위한 많은 노력과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서도 그동안의 시설수용자에 대한 복지정책차원을 넘어서, 장애인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한 기틀 마련과 장애인 편익시설 증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의 바탕에는, 장애인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며, 장애인 복지는 바로 사회발전의 척도가 된다는 인식에서 부터 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외적인 장애보다 더 큰 적은, 스스로의 의식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는 외적장애는 없지만, 여러분들보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장애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신있고 당당한 자세로, 미래를 가꾸는 진취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꿈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회를 승부의 차원보다는 이러한 여러분의 재활의욕과 자립의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참여와 화합의 축제로 만듭시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우정과 사랑이 넘치는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합시다.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와 임원, 그리고 장애인 가족 여러분 모두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1992년 10월 25일

## 문화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지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고장 문화예술인 가족 여러분을 한자리에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정사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하신 황명수 국회의원님, 늘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문화원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박노을 문화원협회 회장님, 또 우리 충남의 예술단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오고 계신 조창희 예총충남지회장님, 또 예술을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같이하신 예술인 가족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상을 받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오랜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우리 한국의 배달문화를 이어온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문화적인 현실을 직시할 때, 반드시 현재의 문화적인 상황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국적없는 언어문화에 대해서, 전통과

전혀 맥이 이어지지 않는 오늘의 혼돈된 대중문화 속에서, 또 숭고한 작가정신이 더러는 퇴색되기도 하고, 창작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조상들이 엮어온 그 문화적인 슬기와 전통을 퇴색하게 한 일부 작가들의 타락한 모습,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조금전 여러분들 윤정희 대금독주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애절한 단장의 느낌을 가졌을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보면 우리 한민족은 5천년의 역사를 가꾸어 오면서, 많은 외침속에서 처자를 잃어야 했고, 전선에서 목숨을 바쳐야 했고, 더러는 외국인들의 굴욕적인 문화침탈을 감수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그 밑에 한의 문화를, 단장의 아픔을 통소를 통해서, 대금을 통해서, 가야금을 통해서 민족의 선율로 가꾸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충남관현악단과 사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흥겨운 가락을 들으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슬프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더러는 용기와 희망과 활력을 주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요, 예술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제 40년 치하에서 문화말살 정책에 의해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가 침탈 당했고, 광복이후에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서구의 문물을 비판없이 받아 들임으로서 국적없는 문화를 형성했던 아픈 역사를 우리 현대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의 연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30년 동안 많은 것을 이루어 냈습니다.

빈곤이 타파된 녹색혁명을 이루었고 가히 혁명적이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산업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직 돈을 버는 일, 공장을 세우는 일, 도로를 닦는 일, 이런 건설과

(70)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대회 격려사

---

산업분야에 우리의 온 정열을 쏟다보니 우리 한국인의 특유한 심성인 정서가 메말라졌고, 심한 정서불안과 정서 갈등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마 지나 대부분 국민들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모레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의식이 족하고 보니까 이제는 보다 더 쾌적한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소위 문화적인 욕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우리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무한한 문화정서적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소중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고, 가락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전체 국민들이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음악,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희망을, 과거의 아픔을 같이 나타낸 한폭의 그림, 이광수의 흠처럼, 무정처럼 국민들의 메마른 정서와 감정을 적셔줄 수 있는 훌륭한 걸작·문학작품이 매우 아쉬운 현실이라고 저는 진단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자리에 계시는 오늘에 사는 문화예술인들의 책임과 사명이 그 어느때 보다도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전에 박원장께서 치사중에 말씀하셨듯이, 어느 특수한 계층의 향락을 위한 문화도 아닌 이제는 전체국민의 높은 의식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대중이 공감하는 차원높은 우리 전통과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해서, 새로운 내일 머지않아 열리게 될 2000년대, 통일의 연대, 번영의 연대 이 연대는 분명히 문화주의가 지배하는 연대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문화주의를 향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또 역량을 배양시켜주고 메마른 현대인의 감정이 흠뻑젖도록 문화의 향기를 피워줄 책임이 이자리에 계시는 우리 문화예술인 가족 모두의 부하된 책임과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6공화국에 들어서 비로소 처음으로 문화

부를 발족시켜서 문화행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발족되었고,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 마련되어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문화행정에 대한 거보가 디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과거에 비하면 문화공간이 크게 확충이 되고, 나름대로 문화인 여러분에게 문화의 갈증을, 창작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기에 미흡하긴 하지만, 상당한 기반이 축적이 된것을 제가 도백으로 와서 한달남짓한 동안에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일은 우리 문화인들이 순수한 문화를 추구하면서, 미래의 문화를 우리 전통에 접목시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힘이 미치는 한, 도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한, 여러분에게 창작할 수 있는 공간, 또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여건, 또 모든 문화단체들이 마음놓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 세월은 문화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도 문화인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순수문학과 예술이 대중속에 침투될 수 있는 여건을 갖지 못하는 불행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열리게될 2000년대, 이 변영의 연대에는 분명히 문화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기점으로해서 전체 충남의 문화예술인 가족들이 내일을 위한 준비를 같이 다짐하고, 어제를 같이 반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전기가 되어지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거듭 그동안 열악한 문화공간과 환경속에서도 창작활동과 지방문화발전에 헌신하시는 문화예술인 가족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0월 26일

## 충남체육 내일을 다짐하는 자리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우리 개선선수들의 자랑스런 모습을 다시 보니 든든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영광을 안겨다주기까지 고생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그 노고를 위로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명의 어린 선수들이 지니고 있는 천부적인 기량을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엘리트 체육에 입문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신, 각급학교 선생님, 또 이분들에게 경기를 지도해 주시고 체육선수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과 필승의 투혼을 불어일으켜주신 감독, 코치 선생님 여러분!

또 이분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재정적인 후원을 맡아주신 경기단체 회장님, 임원여러분, 그리고 많은 성금품을 지원해 주심으로써 적지에서 훌륭히 충남인의 명예와 기상을 드높힐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200만 도민과 기업인들 각계지도층, 또 우리 기관장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모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만족스러운 성과는 아니지만 직할시를 분리해서 독립시킨이후 여러가지 열악한 체육여건과 환경속에서도 이만큼의 제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구체전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승리가 있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터득했는가, 우리보다 비슷한 도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보다도 월등한 성적을 보여주었던 다른 시·도의 장점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분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힘이 우승을, 또 상위입상을 보장해 주었는지 저를 비롯한 모든 충남체육인들 깊은 성찰과 함께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대구시의 넓다랗게 뚫린 도로와 훌륭한 경기시설, 다른도의 조직적인 응원체계, 이런것을 보면서 우리 향토의 초라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타도의 선진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음으로 부러워하고 우리도의 상대적인 낙후에 대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앞으로 기회가 있다는 확신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내년 내후년 제75회 전국체전을 바로 우리의 옆고장인 대전직할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해서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못다푼 상위입상의 한을 성취시키고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주변의 경기장 시설부터 또 우리 선수단의 관리와 훈련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충분히 보완할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갑년체전에서 300만 전도민이 힘을 모으고, 푼돈을 모으고 출향인사까지 가뜰한 정성을 보내주었던 그 기억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충청인들도 어떤 계기만 조성이 되면은 무한히 응집시킬 수 있는 저력과 역량과 끈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후 수십년이 지났습니다만 단한번도 갑년체전 당시의 기록을 깰일이 없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75회 전국체전이 대전시만의 체전이 아니고 어차피 대전시만의 경기시설만 가지고는 전국체전을 치러낼 수 없습니다.

또 체전을 치르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와 재정적인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대전시의 부족한 경기시설과 부족한 숙박시설, 부족한 편의시설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보완을 해야만 합니다.

행정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우리 체육가족 모두도 이번 제75회 대전체전을 계기로해서 다시한번 찬란했던 과거 충남체육사를 회고해보면서 우리 충청인의 명예를 전국에 선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또 우리 충남체육의 증흥을 위한 호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도에서도 계획과 설계를 할 것입니다만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체육계인사 여러분께서도 선수여러분들도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선용한다고하면 능히 해낼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확신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이시간 충남체육의 증흥을 다짐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고 그런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말에 “찬란한 미래는 오늘을 충실히 준비하는자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75회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중상위권에 진입목표는 나머지 2년간 열심히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각고의 노력과 훈련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여러가지 미흡했던 여건속에서도 우리 충남의 체육의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이자리에 계신 체육가족 모든 분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노력 그리고 봉사에 대해서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개인 모두에게 행운이 늘 함께하는 뜻있는 계절이 되시길 빌면서 두서없이 치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0월 29일

## 법질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귀밀리, 멀리까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대전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을 제가 다시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검사장님은 축사를 하셨고 도의회 김부의장님 여기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충청남도 200만의 치안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구본우 경찰청장님, 또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을 대리해서 강 부교육감,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대전일보 서춘원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중도일보 이기창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대전매일의 이지영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70고령 이십이다마는 우리 검찰의 청소년 갱생보호 위원으로 오랫동안 수고해 주시는 박연용의원님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11번째 범죄없는 마을의 영예를 지켜오는 귀밀리 주민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뵈게 되어 매우 반갑고, 또 저 자신이 11년전 이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는 그 해까지 서산군수를 역임하다가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더할 수 없이 큰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귀밀리에 경사를 위해서 태안에서 또 서산에서 와주신 우리 지역사회 기관장들 또 유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도 검사장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시다마는 11년동안 범죄 한건없는 범죄없는 마을의 영예를 지켜오신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축하와 격려와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4,400여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마을 중에서 오직 이 귀밀리 마을 여러분들은 노인회 회장님으로 부터 부녀회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전 마을 주민들이 범죄없는 마을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버릇없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훈도를 또 철없는 젊은이에게는 교도를 통해서 오늘 이 훌륭한 귀밀리에 범죄없는 마을의 명예를 지켜 오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귀밀리 마을은 마을의 위치로 봐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 10여년 동안 여러분이 땀흘려 노력한 보람으로 시설 원예도 훌륭하게 가꾸시고 마을 개발도 훌륭히 이루어 내심으로써, 다른 마을의 귀감이 될 만큼 큰 발전을 이룩했는데 이 뒤에는 바로 범죄를 추방하고,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양심껏 법을 지키며 살고자하는 여러분의 순박한 마음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어른도 몰라보고, 선생도 몰라보고, 법도 지킬줄 모르고, 질서도, 지킬줄 모르는 마치 무법천지에서 사는 사람인양 우리 후배들, 우리 자식들, 또 우리 동생들, 모두가 다 나무라고 있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우리의 전통 미풍을 지키지 않고 있는가, 그 책임은 저는 이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좀더 아이들에게 철저한 훈육을 하고, 효행을 가르치고 법을

지키는 정신을 길러 주었더라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많은 사람으로 부터 비판을 받는 그러한 젊은이로 매도 당하게 되었을 것인가 하고 하는점을 생각할때, 오늘날 법을 지키는 문제, 또 질서를 지키는 문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미풍양속을 되살려서 다시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문제, 이런일들은 모두가 다 이자리에 계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렇게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면면을 제가 여기서 볼때 전부 40세가 넘으신 중년, 장년, 노년층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동생, 다 객지에 나가있고 여기 농촌에 남아있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위로부터 보다 더 엄한 교육을 받고 훈도를 받았다고 하면, 그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질서를 어겨가면서 행동을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때, 이제 남은일은 이 범죄없는 마을의 명예를 지키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법을 지키고 아름다운 미풍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철저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범죄없는 마을 11년의 영예와 전통을 이어오신 귀밀리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 영예가 적게는 우리 해미면의 전마을, 크게는 충청남도 전역에 확산이 되어서 우리 충청남도 만큼은 옛날로 부터 내려오던 순박한 고장, 살기좋은 고장, 범죄없는 고장으로서의 옛 명예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것이 전국에 확산이 되어서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그런 국민으로 또 국민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마음으로 부터 빌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0월 30일

## 건전한 대중문화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사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인 이곳 천안에서, 우리 고장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깊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생활체육 인구확대와 보급에 힘써오신 우리고장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체육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체육계인사와 도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88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매우 높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88올림픽 성공은 스포츠의 또다른 분야인 생활체육의 본격적인 태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조직이나, 동호인도 부쩍 늘어나서, 스포츠는 체육만이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스포츠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체육은 엘리트 체육과 함께 국민체력증진과 한국스포츠 발전을 이끌어가는 두개의 수레바퀴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또 신체활동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으로 스포츠활동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생활체육의 수요에 대처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생활체육 시설 투자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부담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확보와 프로그램 개발에 정부나 우리 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고수부지나 공원등의 근린생활 체육시설을 늘리고, 민간인의 스포츠 시설 건립을 신축성 있게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체육이 각자의 건강한 생활리듬을 제공하고 이 사회의 건전한 대중문화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소중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회는 동호인 가족 여러분의 보람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라는 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고장을 더욱 건강하고 활력있는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여러분의 힘찬 다짐과 아울러, 지역발전을 소망하는 우리 200만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화합의 축제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대회가 있기까지 김용철 회장님을 비롯한 동호인 가족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이자리가 유쾌하고 즐거운 자축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0월 31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동안 도정에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농업은 우리나라의 오랜역사와 함께한 민족의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농촌이 최근 구조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촌의 인력부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농기계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덕분으로 약8억원의 성금품이 접수되어 낙후된 농촌에 농기계를 기증함으로써 농가의 부족일손 해소와 농촌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고장의 많은 농가에서는 농기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현재의 형편으로는 농기계 구입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농촌에 대한 애정과 소망을 농기계보내기 운동으로 함께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결실의 계절, 뜻하시는 모든일 알차게 거두시길 바랍니다.

'92년 11월



1992년 11월 1일

## 잃었던 궤도를 다시 찾아서

먼저 오늘 자랑스런 충남인으로 선정되어 도민의 이름으로 표창을 받은 송건호씨, 전유탉씨 두분, 그리고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달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달이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도가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지난해보다 한단계 앞선 11위를 차지함으로써 충남체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의연하게 우리의 뜻과 의지를 충분히 감사반원에게 제시를 했고 그동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연기군의 사건이 사실상 행정적·정치적으로 마무리가 됨으로 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고생을 했던 관계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달은 문화의 달로써 시·군마다 고장의 특색을 되살려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여러모로 애쓴 흔적이 보이고, 더욱 발전시킨다면 문향의 고장인 우리 충남도의 얼을 계속 발전시키는데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단 한건의 사건·사고도 없이 훌륭하게 문화행사를 치루어준 시·군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

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가슴아픈 일은 지난 10월 16, 17일에 내린 우박으로 인해서 10개군의 농가들이 다 된 농사에 피해를 입은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누비면서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며 일손을 돕고, 특히 휴일을 반납한채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주는 모습을 직접 대하고는 우리 공무원들, 특히 일선의 군·읍·면 공무원들의 노고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이젠 두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기적으로 11월은 겨울로 들어가는 문턱이며, 금년도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누수없이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할 준비를 하는 달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일제에 항거한 구한말 민영환의사의 자결, 광주학생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 해방후 신의주반공학생운동 등이 있었던 달로 11월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 나라 잃었던 설움, 공산주의의 발자국에 국토를 멍들게 했던 악몽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라의 소중함, 자유와 민주의 귀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반추를 하여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하순경에는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되리라 예상되며, 미국에서도 조지부시와 클린턴이 대결하는 대통령선거가 이 달에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이번 대통령선거가 이 달에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이번 대통령선거가 국제질서와 우리 국내 정치질서를 재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며 11월의 시기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 정치사회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국에 맞는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11월 한달은 특히 다른 시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다시한번 깊이 인식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겸허하게 생각해보는 그런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어느때보다도 공명선거가 강조되는 선거이며, 이번에 탄생되는 정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큰 과업을 수행해야 할 정부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통일의 연대, 번영의 연대, 희망의 연대인 21세기를 열어갈 수 있는, 여러가지 사전적인 준비, 선행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준비해야 할 정부가 바로 새정부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하고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할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인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해 우리는 깊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선거가 가장 공명정대하게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정통성이 확보되는 정부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공명선거를 강조하는 참 의의가 있다 할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내무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고, 또 내무행정의 속성상 우리 일선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국민과 늘 접촉하고 있습니다.

가장 국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시키고 상부에 전달할 책임을 우리 내무공무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크고 작은 시책을 소화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지도·계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기간동안 내무공무원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투영되는냐에 따라서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가 국민앞에 비쳐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명선거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과 행동을 올바르게 하여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주민앞에 비춰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예를 보면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행정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방관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거때가 되면 느슨해지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바짝 주민을 긴장하게 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는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는 선거가 있든 없든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행정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는 그린벨트에 대한 훼손, 불법건물 건축 기타 갖가지 범법사례가 한건도 방치, 방관되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행락질서, 산불예방등 모든 일선행정이 이번 선거기간 동안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고 미진한 사항은 보완해서 계획한 대로 마무리 되도록 하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지난 1년간의 행정의 성과가 지방의회 정기회를 통해서 주민들께 보고될 수 있도록 착실한 준비를 해야 할것입니다.

연초에 예산이나 시책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약속한 일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결과를, 의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믿음을 더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해야 할 시점인데 내가 부임해서 느낀것은 그동안 충남도정이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틀림없으나 부분적으로 보면 궤도를 이탈하거나 상식에 반하는 일들도 왕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적인 문제점과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그 사업자체가 굴절되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문제점이나 장애요인이 없이 도정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사업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도지사, 시장·군수가 바뀔때마다 좋은 시책들이 중단되거나 변질되어 낭비를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옴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훌륭한 시책은 후임자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시책은 보완해서 도정을 흔들림없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해야 할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굴절된 도정을 바로 잡는것이 제1차적 과제입니다.

서해안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대역사들의 단위 사업장마다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사전동의 절차등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의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는 우선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기준과 원칙을 엄두에 두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 줄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그동안 분야별로 실·과, 시·군 단위로 오랫동안 적체되어 온 현안사업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표면화시켜 해결하고, 나를 비롯 모든 공직자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숨겨온 일들, 거짓이 있던 일 등을 과감히 노출해서 나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며, 도민의 흠어진 마음을 한곳에 모으고, 긍지와 애항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업, 지금은 어렵지만 2~3, 또는 10년뒤에는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도정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정은 잃었던 궤도를 찾아서 본 궤도를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의 실천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다음은 선거철을 틈탄 각종 불법과 무질서 행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단속의 손길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정은 행정의 제1의 가치가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한 법의 집행이 요구되는 때이고, 모든 국민들, 특히 우리 선량한 도민들은 선거때 법집행이 느슨해지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안과 비판을 가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퇴폐영업·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선거기간동안 다시 고개를 들지 않도록 해당 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각종 집단민원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불만스런 목소리가 물리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고, 그린벨트 구역내 주민들이 선거기간을 틈타 집단행동을 나타내며, 보상과 관련해서 적정보상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가격과 방법의 미진함을 들어 도로를 점거하고, 관공서 앞에서 시위를 하는등의 각종 집단행동들이 표출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기간이 바로 11, 12월 선거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곡수매가 5% 인상과 수매량 850만섬이 농민들의 기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만족스런 수준은 못되지만, 정부에서도 양특적자의 누적등 재정적인 한계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요구대로 수용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정부의 뜻을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사전에 농민들에 대해 설득·계도활동을 함으로써, 이번 추곡수매과정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선량한 사람들이 집단행동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행한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별로, 시군나름대로 계속 주민들과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예방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동대책으로 교통, 설해, 연료, 영세민 대책등 해마다 되풀이 해오던 일이지만, 장기기상예보에 의하면 이번 겨울은 추위가 매우 심하고 예년보다 적설량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여 어려운 이웃, 덜가진 계층들이 훈훈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월동대책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농가 지원문제로, 다 지은 농사를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마음은 상당히 무겁고 암울하기만 할 것입니다.

피해농가의 좌절감을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가지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농업재해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가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대책을 세워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일손을 도와 준다든지, 또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박피해 농가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박피해 과일 사먹기 운동에 군부대, 기업체, 산하기관등에서 참여, 2만상자가 넘는 사과, 배를 사줌으로써 적으나마 그분들에게 용기를 고취시켜준 바 있는데 앞으로 만생종이 출하되는 시점에서 과일 사주기 운동을 보다 더 확산시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제 추경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내년 예산도 편성해야 합니다만, 과거의 관행이나 고식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행정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충족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기능과 업무의 다양한 변화를 예측해가면서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각 분야의 행정이 나름대로 본래의 목적을 잘 수행하도록 윤희유 같은 역할을 예산이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기왕에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여 정상적인 궤도에 진

입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여력이 있을 경우 신규사업을 추진함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10월말까지 착수되지 않았거나 문제점이 있어 착수하지 못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손질해서 삭감하고, 다시 조정해서 금년도 나머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소망입니다.

의회의 정기감사와 예산편성등 의회와의 관계가 어느때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의회를 대할때 “의원 개개인이 주민의 대표기관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시책을 선정·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해당상임위와 공·사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이해를 촉구하여 서로 긴밀한 협조와 유대 강화로 인해 우리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와 사업계획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의회를 도정홍보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과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해왔는가?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는가? 공·사간에 자기의 자취를 더듬어보고 또 모자람이 있으면 채워넣고 반성하는 가운데 11월을 보내 주실것을 당부하면서 훈시에 갈음합니다.

1992년 11월 4일

## 믿음직한 사랑의 봉사

민병구 지사장님 그리고,  
우리고장 적십자 가족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여러분,

대한적십자사 창립 87주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숭고한 적십자의 이념을 사랑과 봉사로 실천해오신 우리 고장 적십자  
가족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고해보면 1863년 적십자가 탄생된 이래, 전쟁의 아픔과 재난이 할퀴고간 자  
리에는, 늘 적십자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는, 이념의 분쟁에서 벗어나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적십자 정신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그 실천을 다짐하는 오늘의  
대회는 참으로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난극복사가 말해주듯,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침속에서도, 자유와 독립,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평화를 사랑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세기초 국제적십자에 가입하여, 인

도적인 지원과 구호의 손길을 펼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의 비극적 분단으로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남북 이산가족의 재회와 사할린 동포 모국방문의 성과는 우리 적십자 가족이 이룬 큰 보람이었습니다.

또 지난 87년도에 우리 고장의 대홍수때에도, 적십자는 시련과 좌절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고마웠던 기억을, 지금도 우리는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십자의 활동은 우리 충남과 대전에서도, 활발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구호사업 이외에도 사회봉사와 사랑의 헌혈운동, 그리고 최근 장의운구 무료봉사, 129 응급환자 정보센터를 개설하고, 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진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 인도주의는, 다가오는 2000년대, 변영의 연대, 통일의 연대를 여는 믿음직한 사랑의 봉사자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희망찬 역사의 진운과 함께, 그동안 적십자가 펼쳐온 숭고한 노력이,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의 기쁨은 물론이고, 또 우리 7,000만 겨레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민족 모두의 보람과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에 사는 우리는, 이 사회 어두운 곳 구석구석까지, 사랑과 봉사와 희망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평화와 변영이 넘치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적십자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다짐하고, 다같이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민병구 지사장님을 비롯한 적십자 가족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에 거듭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안 공청회 인사

1993년 11월 5일

## 윤택한 농어촌, 쾌적한 도시, 건강한 사회

자리를 함께 하신 각계인사 여러분!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지역은 국토의 중심지역이며, 교통의 요충지로서 유서깊은 역사와 문화유적을 간직하면서 계룡산과 금강, 서해안의 절경 등, 풍부한 부존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예로부터 위인과 열사를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서 도민 모두가 온건하고 강직하며 충절 지향적이기 때문에 지역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지역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충남은 과거 정부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경부축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의 불균형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개발이 다소 늦어져왔고 현실적으로도 산업구조 자체가 전통적인 농업위주로 되어 있으며, 특히 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됨으로서 도세가 크게 약화되는 등 개발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충남이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난 82년부터 91년까지 실시된 제1차 계획기간중에는 총량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지역적 갈등과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차질이 많았던 반면, 그 성과로서는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도의 열악하였던 도로가 대폭 확·포장되었고, 해마다 한해와 수해로 시달려오던 농업이 기계영농으로 획기적으로 탈바꿈 하였으며, 공업화 시책에 있어서도 대규모 공단과 공장의 입지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도세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속에 국제화, 개방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고, 「지구촌」 사회의 형성속에 세계문명의 중심지가 환태평양 시대에서 환태평양시대로 옮겨지게 될 것이며 중국 등 적극적인 북방외교의 마무리와 남북교류의 진전등으로 그동안의 개발의 연대가 통일과 번영의 연대로 크게 변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방적으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도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개발에의 참여욕구도 다양하게 증대될 것이며, 더욱이 서해안 개발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지역이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지역으로 급격히 부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각종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여가나 문화·환경등과 같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분출 될 것이며, 지역간의 개발분쟁 분위기가 확산되어 자칫 지역이기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의 여건과 현실은 불확실성 시대에 변화의 소용돌이로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충남개발의 과제는 이러한 제반제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어떻게 수용하여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은 1차 계획의 경험을 토대로 90년대의 제반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의 개발방향을 정립하고 통일의 연대, 번영의 연대인 2000년대를 폭 넓게 내다보면서, 90년대를

설계하는 청사진으로서, 개발이란 양적 기조보다 발전이란 질적기조에 입각하여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의 꿈과 희망에 찬 미래상을 추구해 나가되, 발전의 성과가 모든 도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는 신념아래 농업도로서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업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업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고 백제문화권종합개발등 충남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문화도로서의 자긍심도 살려 나가는 등, 농업·공업·문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도 발전에 있어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도로와 물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고, 우리는 물론 우리의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길이 영위할 수 있도록, 쓰레기 문제 등 환경보전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은 2000년대 도민 1인당 소득 1만6천불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도정사상 대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윤택한 농어촌, 쾌적한 도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커다란 숙원인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닐것 입니다.

더욱이 도민 여러분 한분 한분이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와 견주어 볼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면도 많을 줄 압니다.

특히 이 계획의 집행에 소요되는 28조원이란 막대한 투자재원은 21세기 밝은 미래를 추구해가는 충남인에 대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도민여러분!

영광된 역사는 항상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내와 땀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공청회도 그러한 도민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보완하고 더욱 발전된

계획으로 수립해 나가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의견과 밝은 지혜를 기탄없이 제시해 주셔서, 도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충실한 계획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다시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6일

## 화합의 씨를 뿌리는 자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만추의 서정이 유서깊은 천안삼거리와 함께 메마른 우리의 정서를 한결 윤택하게 해주리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20개 시군을 대표하는 우리 고장 노래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수준높은 노래, 조화로운 합창의 향연, 흥겨운 한마당 노래 잔치가 우리들의 마음을 살찌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고장 노래가족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8년전 첫 합창경연대회가 열리던 해, 그때는 새마을 운동의 불길이 전국을 휩쓸었던, 국운 개척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국민모두에게 애창된 새마을 노래는 그 시대를 상징했던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새마을 노래에 잠이 깨고 새마을 운동으로 하루 해가 저물었을 만큼, 새마을 노래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고, 조국 근대화에 활기를 불어 넣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은 그 시대마다 삶의 맥박과 향기를 가락에 담아왔습니다.

판소리, 민요, 가곡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정서가 깃든 이러한 노래는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그 감동과 멋을 음악성이 뛰어난 우리의 가락들입니다.

최근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음악이 국적불명의 자극성 높은 외래 대중음악에 침식당하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만의 정서와 문화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래가 한 사회나 나라의 정신문화를 비취는 거울이라고 볼때,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건전가요의 보급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함께, 보이지 않는 단합과 조화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합창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듯이 우리 도민의 화합과 발전도, 결국 우리는 하나라는 연대감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밝고 아름다운 노래가 도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사회기풍을 불러 일으키는 메아리가 되고, 아울러 오늘의 뜻깊은 잔치가 우리 지역 곳곳에 화합의 씨를 뿌리는 훈훈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같고 닮은 숨씨와 기량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한편, 그동안 시군의 합창단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심사를 맡아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회사에 갈음합니다.

1992년 11월 6일

## 가치있는 인생

오늘 열아홉번째는 거듭해온 대일비호대상 시상식을 맞이하여, 먼저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하여 봉사과 헌신으로 보람을 쌓아오신 다섯분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각 기관장님, 수상자 가족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때,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스스로를 보람있게,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성취해 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전통이나 가치관이 참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는 느낌을 갖는것이, 비록 저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급진주의속에서 우리사회가 전환기적인 사회갈등 현상을

겪어오기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우리사회가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몇몇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도덕성 회복과 이웃돕기, 질서지키는 일, 그리고 일터하기 운동등의 건강한 사회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이치를 깨닫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 쉬운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것을 가진 사람도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사람도 남을 도울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계신 다섯분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오면서 이웃을 위하여 작은 정성이나마 꾸준히 실천하는 인생을 가치있게 사는 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끝없이 추구하는 이상이 있다면, 인격의 완성이요, 선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사회 그들에게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 선진국을 향한 힘찬 걸음에 이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가 오늘의 올바른 삶과 가치를 창조하는데, 여기계신 다섯분들이 또 이자리가 시대를 밝혀가는 등불이 되고, 지역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지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해마다 이처럼 보람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대전일보 서춘원 사장님을 비롯한 사우여러분께 고마운 뜻을 전해드리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7회 공산교육상 시상식 축사

1992년 11월 6일

## 師道の 보람

먼저 오늘 일곱번째 맞이하는 공산교육상의 영예를 차지하신 다섯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처럼 보람된 공산교육상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육가족들의 노고에 위안을 주고 계신 최원석 이사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배움이 있다는 것은 신께서 주신 참으로 큰 은총입니다.

더구나 훌륭한 선생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인생중에서 가장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중의 하나가 인재를 가르치고 길러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인들은 벼슬을 하다가 미련없이 그 자리를 내놓고, 2세교육에 헌신했던 사실은 흔히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보람만큼 선생님들께서 선택한 교육자의 길은 어렵고 힘든 인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겪어오기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우리사회가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몇몇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도덕성 회복과 이웃돕기, 질서지키는 일, 그리고 일터하기 운동등의 건강한 사회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이치를 깨닫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 쉬운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것을 가진 사람도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사람도 남을 도울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계신 다섯분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오면서 이웃을 위하여 작은 정성이나마 꾸준히 실천하는 인생을 가치있게 사는 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끝없이 추구하는 이상이 있다면, 인격의 완성이요, 선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사회 그들에게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 선진국을 향한 힘찬 걸음에 이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가 오늘의 올바른 삶과 가치를 창조하는데, 여기계신 다섯분들이 또 이자리가 시대를 밝혀가는 등불이 되고, 지역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지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해마다 이처럼 보람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대전일보 서춘원 사장님을 비롯한 사우여러분께 고마운 뜻을 전해드리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7일

## 다시 열심히 일했던 자리로

한국타이어 홍건히 사장님과 임직원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여러분,  
그리고 금산 군민여러분,

오늘 한국타이어 제조주식회사 알로이휠 공장이 공업의 불모지인 이곳 금산에 세워진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충심으로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 금산에 이처럼 훌륭한 공장이 건립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한국타이어 홍건히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선진국에 비하면,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과 함께, 이제 자동차 산업은 나라의 성장과 번영을 주도하는 기간산업이 되었고, 부품산업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반세기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타이어 공업계의 선두주자로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계속하여 타이어 업계 세계

12위의 매출을 자랑하는 세계속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더욱이 오늘 한국타이어 알로이휠 공장 준공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질 좋은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국내 자동차공업의 발전과 수출 전략 상품으로서, 우리 지역과 나라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금산은 지리적 여건으로 그동안 공업화 시책에서 다소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제원공장 준공으로 새로운 공업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음은 실로 금산발전을 위해 경하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발전과 변화에 따르는 제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간 연계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환경보전문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우리의 더 많은 땀과, 지혜와,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의 이러한 소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여건과 상황이 미흡하나마 최근들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역수지가 점점 개선되고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도 어려워진 경제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번영의 연대, 통일의 연대로 기대되는 21세기를 대비하고, 선진국 진입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도 근로자와 국민 모두가 지난날 열심히 일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국타이어 알로이휠 금산공장 준공이 이러한 우리의 의지에 불을 지피는 다짐의 계기가 되고, 우리 제조업이 더욱 활력을 찾게 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타이어 알로이휠 공장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금산지역의 발전과

우리 충남의 공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소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타이어 가족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세계속의 대공장으로 응  
비하게 되기를 200만 도민과 함께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1992년 11월 7일

## 예술혼을 지펴온 뛰어난 서예가

가을은 비단 예술인 뿐만 아니라, 평범한 보통사람들에게도 정서적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계절입니다.

낙엽 뒹구는 거리가 그리 싫지 않고 담백한자락 나무끼는 전시회 포스터에 저절로 눈이 가는 것도,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투명한 메세지인듯 싶습니다.

그래서 남계 조종국선생의 이번 작품전도 이 가을 한 모퉁이를 채우기 위해 오래전부터 틈틈히 준비해온 결실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미 남계선생은 한국서단에 정상의 대열에 서 있는 우리 충청인이 낳은 저명한 중격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예뿐만 아니라 틈틈히 써온 글을 모아서 수상록을 펴낼만큼 항상 스스로 갈고 닦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작가적 기질이 뛰어난 문필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계선생이 우리 도정과 긴밀하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우리 고장 예총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고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본업인 창작활동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었음직 한데, 스스로 문화시대의 밑알이 되기를 자처하며,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남계선생의 작가로서, 공인으로서의 약력을 깨알같은 글씨로 한 페이지

가득 채우는데에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의 남계선생이 있기까지에는 절차탁마하며 예술혼을 지펴온 서예가로서 오직 한길을 걸어 왔기 때문일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협회전이니, 회원전이니 하는 곳에서 선생의 작품은 어김없이 내걸려 향토서단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 발전에 선생에게 거는 기대 또한 남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토예술의 빈 공간을 채우며, 어느곳이든 어떠한 모습으로도 지방문화 발전과 창달에 더욱 정진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뜻깊은 작품전이 문화의 계절을 빛내는 뜻뜻한 공간이 되기를 거듭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1992년 11월 11일

## 충청인의 이익 대변

대전일보 창간42주년을 축하드리며, 대전일보 가족과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대전일보는 민족수난 시대의 어려움속에서 태어나 진실한 보도와 공정한 논평으로  
중부권 역사의 구심점이 되어왔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현실로 다가설 수 있도록, 대전일보는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감각과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데 기대에 찬 역할을  
다해줄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충청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랑받는 신문으로서, 우리 고장이 나라발전을  
선도해가는 중추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1992년 11월 16일

## 사랑과 화합의 메아리

기독교 방송 대전분실이 우리 지역에 전파를 내보낸지 그 첫해를 기념하는 음악회의 개최를 축하하면서, 기독교방송 가족여러분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기독교방송은 지난 1년간 이 지역에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보람된 내일을 소망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 사회의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CBS 합창단 초청음악회 또한 이 좁은 공간을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가 사랑과 믿음으로 축축해지고, 삶의 지혜와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랑과 화합의 메아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성원과 도민들의 바램에 부응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방송 가족의 끊임없는 전진을 기원하며, 거듭 오늘의 초청연주회에 성원의 뜻을 보냅니다.

1992년 11월 19일

## 후의와 격려에 감사

만주의 서정이 정겨운 계절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는 바쁘신중에도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고장 새마을 지도자 모두는 대회를 마치고 무사히 귀향했습니다.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베풀어주신 후의와 따뜻한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가족 모두는 말은바 소임에 더욱 정려하라는 분발의 뜻으로 알고 나라의 융성과 고장 발전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오며, 저희 도정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내내 평안하시길 빕니다.

1992년 11월 20일

## 선진 農道의 명예

4H가족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영예의 대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5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오늘의 4H경진대회를 지켜보면서, 전시장에서 여러분이 쏟은 열정과 정성어린 노력을 살펴보면서, 본인은 45년전 이땅에 처음 4H가 민간운동으로 출발한 이래, 6.25후에는 농촌회복운동 주역으로, 60년대에는 농촌 재건운동의 전위로서, 그리고 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의 바탕으로서, 녹색혁명의 기축을 주도한, 뿌리깊은 농촌운동의 향도적 사명을 다해 온, 4H가족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치하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있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의 부단한 개방압력과 이미 개방화된 세계농산물 시장에 과감히 대처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 농업의 선진화는 우리 모두의 필연적 과제요, 시대적 소명입니다.

4H가족 여러분!

해마다 농촌을 등지고 이농현상, 묵은 논과 밭이 늘어나는 오늘의 농촌, 중국산 값싼 농산물이 마구 들어와 우리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걱정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농업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을 원년으로 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을 착수하고, 농촌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집중투자를 계획하는 등 농업선진화에 역점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뒷받침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수출유망작목의 개발 육성,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포장 재개발 및 제도 개선은 물론, 정주권 개발과 농촌 인재 육성 연구소 설치 등에 과감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구조개선이나 농업선진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농촌을 걱정하고 지키는 우리 모두의 땀과 인내와 지혜가 응집되어야 가능합니다.

농촌을 지키고 가꾸는 4H가족 여러분!

「통일된 조국, 번영하는 나라, 윤택한 농촌」, 이는 우리가 소망하는 조국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는데는 역시 4H가족 여러분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창의적인 노력과 부단한 연구, 신기술의 개발과 경쟁력 높은 농산물의 생산을 통해 농업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선진화를 성취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부여된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우리모두 오늘의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여 선진 농도 충남의 명예를 회복하고 선양하는데 열정을 경주해 나아갑시다.

끝으로 오늘의 경진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4H가족과 준비에 애쓴 지도직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치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0일

##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수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도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도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성실히 수렴하고, 도정의 많은 현안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지역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상호협력의 노력을 기울여 오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도장으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도정에 대한 애정어린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변화속에 큰 발전을 이룩한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전후의 냉전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로 경제적 실리가 우선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왔습니다.

특히,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나 EC등 경제 통합체와 지구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리오선언」에서 보듯, 무역과 환경 부문에서, 선진국의 세계질서의 흐름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82년만에 국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그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북방정책이 결실을 거두는 가운데, 우리의 염원인 통일로가는 커다란 발걸음을 한발 성큼 내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 가운데, 국민의식의 성숙과 단합을 이루어 안정과 도약을 향한 힘찬 발판을 구축해 왔습니다.

경제면에 있어서도, 세계경제의 침체속에서 7.3%의 높은 성장율을 달성하였고 국제 수지 적자폭도 상당히 좁혀지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고민의 뜻과 바램을 수렴하여, 주민본위의 실질적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데 힘쓰면서, 자치행정의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충남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농어촌 활력화를 위한 전략사업의 선정과 추진, 지방물가 안정과 중소기업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 노력도 우리가 역점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도정의 구석구석을 되돌아볼 때,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적지않았음을 성찰하면서, 이를 내일을 위한 교훈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각종 시책이나 사업들이 도민과 약속한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14대 총선과 관련한 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저 자신부터 공명선거에 관한 결연한 의지로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대통령선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93년은 그 어느때보다 역사적·정치적·행정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소중한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93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데 국력을 모아 나가야 할 시기로서,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해 입니다.

새로 탄생되는 정부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선진 조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국가적인 목표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북방정책을 더욱 진전시켜 통일기반을 한층 가지화시켜 나가야 하는 해 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개원 3차년도가 되는 해로서,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정착되고, 보다 성숙한 자치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서해안 시대」의 큰 흐름위에서 충남의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잡아 나가야 할 시기이면서, '93 대전 EXPO가 이웃 대전에서 개최되는 해 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대전직할시 분리이후 5년째가 되는 해로, 도세의 회복과 함께 「자립 성장」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 「번영의 본궤도」에 올려 놓아야 할 소중한 해입니다.

아울러, 93년은 천안시가 읍에서 시로 승격된지 30주년이 되고, 금산군이 전라 북도에 속해 있다가 우리 도로 다시 복원된지 30주년임 되며, 일본 구마모도 현과 자매결연을 맺은지 10주년이 되는 등, 우리 도정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한 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가 행정의 첫 문을 연지 100주년이 되는 1996년과 충청도 명칭을 사용한지 600주년이 되는 1995년을 불과 2~3년 앞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 도정과 관련한 이와 같은 깊은 의미를 인식하는 가운데, 도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행정 수행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새로운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실천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가운데, 도정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 봉사를 통한 신뢰행정」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도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의 가시화를 촉진」시켜 2000년대를 향한 충남의 미래를 착실히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개발=공업화」라는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배제하고,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안정과 화합기반」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도정의 시발이 되면서, 또한 과정이고, 아울러 최종적인 성과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 중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시책선정은 신중하게 하고 선정된 시책은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중점시책으로서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도정의 역사적 의미를 살린 시책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적극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그늘진 곳, 어려운 계층,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세심한 관심과 지원에 역점을 두어 제반시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특히,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 안길, 도시의 뒷골목 포장과 가로등·방범등의 설치, 시가지 보도블럭의 교체 수선, 역과 터미널·시장의 공중변소 관리, 농촌마을의 버스승객 대기소 설치등 생활민원의 해결을 위해 예산을 중점 투입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원묘지시설등 필수적 사회공익시설의 설치 확대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쓰레기처리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그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선결과제를 인식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권역별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묘지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공원묘지와 납골당, 화장장 등을 포괄하는 「종합묘지 설치 방안」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발전방안을 연구 모색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들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부쩍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상수도원의 특별 관리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우리의 향토를 보전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농공단지 오·폐수와 축산폐수의 오염방지 시설을 확충하고, 공해관리 사업소를 설치,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신공업지대를 중심으로 공해방지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보전 노력은 행정적인 시책과 함께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도민의 참여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생활에 어려움에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역량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의 질 향상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퇴폐·변태업소와 부정·불량 식품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소외감을 덜고, 보람있고 가치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선용 공간을 크게 늘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함께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기술교육등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의 길을 열어주고, 불우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지원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교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 기회를 늘리고,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과 함께, 다각적인 보호시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앞세우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경제 불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각국의 대응 노력은 치열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날로 치열해져가는 새로운 질서의 전쟁, 경제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역량과 지혜를 쏟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를 보다 튼튼히 하면서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위한 정부의 내년도 경제 운용방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기본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주도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생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물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물가점검과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 관내 업소별로 카드관리제 실시와 함께 합동 지도단속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체의 적극적인 육성이 경제활력의 최우선 과제를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시책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중소기업 애로타계 위원회」를 한층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생산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적출·시정해 나가면서 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금년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관내 중소기업체의 해외판매 촉진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노사간 협력을 통한 산업평화 기반의 정착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도는 서해안 시대를 맞아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희망의 고장」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단의 한·중수교와 더불어 서해안지역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더욱 높아지면서 우리 도의 위상은 더욱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주민의 개발 욕구를 수렴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에 도정의 촛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여건과 방향에 맞추어 2000년대 충청발전의 목표와 미래상을 담은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하여, 현재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와 중앙의 법정승인 절차를 거쳐 조기에 확정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충남 개발의 선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충청발전의 실체를 가시화하고 도세신장의 기반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전력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종합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이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주신대로, 특정지역 지정문제가 조만간 중앙의 필요한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시·군, 관광공사 등 대상사업의 시행 주체별로 사업 추진체제를 확립하고, 하나하나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서해안 개발사업들이 한층 더 가시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기왕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본격적인 궤도진입과 마무리 촉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의 지표로 흔히 인용되고 있는 공업화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01년까지 총 89개 단지에 2,740만평의 공업단지를 조성, 선진공업도로 육성한다는 것이 공업화 전략의 주요 골자입니다만, 그동안 도세신장을 위한 전력사업으로서 공업화 계획을 적극 추진해온 결과가, 지금까지 77개 단지에 2,303만평을 조성 완료 또는 공업단지로 지정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공업도 실현의 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가공단과 지방공단, 그리고 농공단지등 10개 지구 324만평을 공업단지로 지정하고, 자유입지 5개 지구 16만평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업화 추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업화를 위한 「개발」이 「자연」과 「문화」를 훼손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화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의 생활편익을 높이는 가운데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가꾸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과 농오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과 하천을 개수하는 일, 그리고, 각종 도로를 확·포장하는 일들은 모두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도정이 더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할 부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93년은 우리와 이웃한 대전에서 「대전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대전세계박람회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문화·관광개발, 숙박시설확충, 주요 연결도로망 확충 등 5개 분야 3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중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문화·관광EXPO」에 걸맞게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충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세계속에 심어주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EXPO기간중 우리 고장을 찾을 연 300~400만명의 손님맞이를 위해 숙박·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관광코스의 체계적인 개발, 특산품의 다양화등을 통해 「인상깊은 충남」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이 되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지방 문화예술의 육성과 함께 건전한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는데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천안의 국악관현악단과 공주의 교향악단 등 도립 예술단의 순회공연을 늘려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꾀하면서,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의 상위권 입상을 위한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의 발굴과 육성에도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는 곡창으로서 「농업도」의 전통을 소중히 이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의 수교이후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의 농어촌과 농어민의 불안의식이 점차 높아 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응노력과 연계하여 농어촌의 활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들을 다각적으로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수산물 수입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수·원예등 성장 작목단지과 지역별 특산단지를 조성하고,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과 농산물 도매시장등 판매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유통과정의 이익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집하장, 저온저장고, 공판장 등의 설치를 확대하여, 전통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산지에서 직접 가공, 고부가가치상품으로 도시민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쌀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학교등에서의 단체급식 확대, 「양곡종합처리장」의 증설과 임도정 공장시설의 현대화도 우리가 해야 할 일중의 하나입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정주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도내 27개 면을 대상으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안길 정비, 쓰레기 처리장, 저장창고등을 건설하고 농어촌의 밤길이 더욱 밝아지도록 보안등을 자연 부락단위로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영농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촌노동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 기계화를 계속 추진하고, 특히 그동안 좋은 성과를 보인바 있는 위탁영농회사와 기계화영농단의 설립을 확대하면서, 마을 간이수리소, 농기계 보관창고등을 설치함으로써 농기계의 사후수리 봉사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영농의 꿈을 구현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신기술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개발된 기술은 농가에 즉시 보급함으로써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입 농산물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과 양축선도 농가를 적극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산업은 원양어업과 내수면 어업분야를 함께 개척해 나간다는 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생산성향상과 아울러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을 기울이면서, 산지 자원화와 산림육성 시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시작된지 3년이 되었습디만, 그동안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 짧은 기간동안에 상당부분 치유되고 준법 질서의식이 높아지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거둔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이르러 그 추진 열기와 관심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키워나가는 선진 질서 운동으로서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여건하에서 지역의 안보와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의 대규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느슨해지기 쉬운 도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각종계기를 통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이같은 안보태세의 강화와 함께, 크고 작은 재해나 돌발적인 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는데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조기 경보체제의 구축과 함께 상시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1월 광역 소방행정체제로 전환되면서 도에 소방본부가 발족되어 현재 도단위체제로 소방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역량 배양에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정착시키면서, 한편으로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엄정한 기강확립속에, 도민의 편에 서서 더욱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책임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 재정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절약과 내핍의 실천으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에도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소망을 굴절없이 수렴, 도정에 반영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359억원, 특별회계 4,740억원 등 총 9,09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2.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도민 생활민원의 획기적 개선과 EXPO에 대비한 환경정비를 추진하면서, 지역 균형개발 촉진과 농어촌활력화 지원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특히, 환경보호와 공해방지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통일의 연대, 번영의 21세기를 내다보며 급격한 변화의 흐름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의 발전을 위한 길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척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역사는 항상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만 빛나는 영광과 밝은 미래를 약속해 왔음을 다시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역사의 시계는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의 노력이나 땀보다 더 많은 힘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며 신뢰하는 한, 우리 충남은 더욱 쾌적하고 윤택한 고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개척자」 그리고 「도정의 창조자」라는 신념과 의지를 갖고 전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밀고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30일

##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

대한 노인회 충남 연합회에서 마련한 노인시책 개발에 관한 연구문 발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대한 노인회 김영구 충남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노인학교장님,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옥고를 내주신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해 드립니다.

한 세대를 이끌어 가는 힘은, 그것이 당대로 부터 나온것이 아니라, 앞서 살아온 선대들의 지혜와 경험이 바탕이 됨으로서, 오늘의 역사발전을 이루어 가는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기록을 통해 보더라도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원로들을 모아놓고 사서오경등의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곤 했는데 이를 경연이라 했습니다.

이는 원로들의 풍부한 지혜와 오랜 생활경험을 국사에 활용코자 했던 조상들의 슬기로운 자취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젊은이들에게는 이미 구세대란,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 문화뿐만이 아니라 노인세대는 분명, 오늘의 이 시대를 있게 한 사회의 공로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인문제를 모두가 도달하게 되는 삶의 한 단계임을 인식하고, 그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하여,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요, 책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경로애유사상 고취, 도덕성 회복등의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점차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만, 모든 어르신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연구문 발표회는 우리 도의 노인복지 시책개발과 발전축진을 위한 매우 뜻깊은 계기라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리가 오늘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고장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로서, 사회원로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게 되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후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사회를 이끌어 오시는 여러 어르신들께, 거듭 따뜻한 위로와 경의의 뜻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92년 12월



1992년 12월 1일

## 마무리 행정에 최선

친애하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200만 도민 여러분! 실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이제 12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자랑스러운 충남인으로 선정된 나충수씨, 황삼문씨, 그리고 김순영씨와 으뜸도정상을 받은 당진군의 이광배씨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2월은 우리에게 매우 바쁘고 소중한 한달이었습니다.

새해 업무계획보고회, 신년도 예산편성, 내무장관 초도순시, 도의회 정기회의, 14대 대통령 선거인명부 작성과 공명선거를 위한 다짐과 결의등 많은 일을 수행하면서 보여준 공무원 여러분의 충직한 노력과 열정은 높은 평가받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할 12월입니다.

늘 세모가 되면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새해에 대한 희망과 설계를 구상하게 마련입니다마는 특히 금년 12월은 예년과 달리 역사적 흐름의 중요한 시점으로 오늘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금년 12월이 사실상 6공화국 시책들을 매듭지어야 할 시기이며 둘째로, 국가와 민족의 진운을 결정짓는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달이고, 셋째, 우리 도정과 국정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될 93년의 설계를 구체화 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월 한달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한 결실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오는 18일에는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금세기를 마무리하고 통일과 번영이 기대되는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만은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서 새로운 공명선거 문화를 기필코 성취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당적이탈, 중립내각의 구성등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역사적인 당위성으로 인식하고, 실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반 관련업무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작금의 선거분위기는 우리들의 공명선거 실천 노력으로 대체로 자제하는 분위기 입니다마는, 점차 과열조짐이 보이면서 금권 타락선거를 걱정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 대책의 중점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더욱 확산 강화시키면서, 각종 탈법·불법 행위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가일층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공명선거 운동이 공평성을 잃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조도 더욱 긴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행정의 선거관여 시비가 일지 않도록 엄정 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관기관·시설·기업체 방문등을 자제하고 특히, 통·리·반

장·국민운동단체 등에 선거관여 소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가 공명선거 감시요원이 되고 계도요원이 되어서 공명선거 의지를 수범하면서, 투표통지표 교부등 앞으로 남은 법정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선거기간중 정상업무가 한치도 차질없게 추진되도록 업무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시기마다 우리 지방행정이 보루의 역할을 다해야 나라와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음을 우리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유권자의 바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하셔서 금품에 유혹되거나 스스로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된 민주시민의 역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겨울, 훈훈한 세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정력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외롭고 어렵게 추운 겨울을 보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듯한 보살핌을 베풀어 이들에게 자활의 용기를 고취하고 훈훈한 인정을 느끼도록 대대적인 인보상조 운동을 펼치는 한편, 겨울철을 맞아 도민들이 사고와 재해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완벽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말연시에 들뜨기 쉬운 사회 분위기속에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하여 검소하고 자제하는 수범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한해의 보람과 결실이 한꺼번에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모두 자제하는 지혜, 검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 안빈낙도 하던 선인들의 지혜를 되살려 나아갑시다.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알뜰히 마무리하고 차분하게 새해 도정을 설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난달 실국별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군정 업무를 살피는 과정에서, 그리고 몇차례 의회의 감사와 임시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한 각계 도민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앞에는 해결하고 살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그늘진 곳, 개발에서 소외되거나 가려진 곳, 행정의 사각지대를 하나하나 가려서 '93 도정에 반영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정열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누수없이 알차게 마무리하되 시기가 동절기 임을 감안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어 행정의 공정성과 안정성, 신뢰도가 실추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

93년은 실로 많은 일들이 우리 공직자의 어깨를 무겁게 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이에 따르는 새로운 행정수요의 격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도로서는 백제권 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는등,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미진했던 대단위 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은 물론, 지방자치 3년차를 맞이하여 성숙된 자치행정 문화의 정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오늘의 시점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나라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보람과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끊임없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찬 한걸음 한걸음이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더해줄 것이며, 우리가 수행하는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가 내일의 밝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중한 자취임을 깊이 새겨 거듭나는 성찰과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도정의 장을 우리들의 손으로 펼쳐 나가야 할 역사적인 책무가 우리에게 있

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흔들림없이 곳곳하게 열심히 일해왔던 것처럼 연말까지 당면한 공명선거 실천등 모든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이자리에서 특히 한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작금의 선거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선거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가지만 여러분에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되기 전부터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차례 강조했고, 그것이 우리들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서 이제는 어느 신문 어느 면을 보더라도 관련선거에 대한 시비가 보도된 흔적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행정의 힘이, 공무원의 단합된 지혜와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인식했을 것입니다.

예년같으면 국민들의 눈에 관련선거에 대한 시비가 얼마만큼,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비쳐졌던가 하는 기억을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공직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일탈하거나, 또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선서에 관여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일들이 일체 자제되고 있다는 인상을 현재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행정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제는 관련선거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전혀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타락선거의 분위기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인데, 선거가 혼탁해지면 혼탁해 질수록 유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돈을 살포하고 물품을 표와 바꾸려고 하는 그릇된 선거풍토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단연코 배제해야만 합니다.

해방 후 50여년간의 헌정사를 통해서 이번처럼 공명 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또 정부의 의지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진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동안 혼탁한 선거분위기, 금권이 살포되는 선거분위기, 타락한 선거분위기만 배제한다면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우리 헌정사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정의 눈길을 타락선거 방지와 금품 살포를 감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혼탁한 선거 분위기가 일지 않도록 감시자가 되고 감독자가 되어서 그런 사례를 과감하게 적출해내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남은 기간동안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다음 정부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훌륭한 민주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있는 힘을 다 쏟아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연말 한달 남았습니다.

이 한달의 의미, 세모의 의미를 다시한번 마음속 깊이 인식하면서 금년 한 해동안 여러분이 땀흘려 일한 모든 보람들이 소중한 결실로 도민앞에 제시될 수 있도록 마무리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차가와지는데, 우리도민 가운데 한사람도 추위에 고생하거나 고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명랑하고 안전한 세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1992년 12월 1일

## 농촌 부족인력 해소

찬서리 속에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우리 농민들에게 유난히 가뭄과 수해 그리고 우박피해 등의 재해가 있었던 한해였지만, 12년 연속 풍년농사는 그 어려움속에서 이룬 보람된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심으로써, 농촌의 부족인력을 해소하고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늘 살피주시는 정성과 따뜻한 온정에 대해 우리 농민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성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시는 모든 일에 뜻대로 결실되기를 기원합니다.

1992년 12월 1일

## 보내주신 온정 감사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평소 도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농촌발전에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우리 농민이 이룬 12년 연속 풍년농사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뜻하지 않은 우박 피해를 입은 피해농민들의 아픔 또한 큰 것이었습니다.

피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보내주신 따뜻한 온정에 힘입어 우리 농촌은 다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농촌을 살피주시고 도와주시는 고마운 뜻,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 주시고 도정발전에도 아낌없는 참여와 편달을 기대하오며, 바쁘신 연말 보람으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제36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 식사

1992년 12월 4일

## 이 시대의 소중한 덕목

오늘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하신 여섯분에게, 먼저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수상자 가족, 친지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기관장님을 비롯한 지역문화계 인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을 위하여 쌓아오신 헌신과 봉사, 그리고 빛나는 업적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오늘 영예로운 수상의 보람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6년의 전통과 연륜을 자랑하고 있는 충청남도 문화상은, 명실공히 충남인의 긍지와 명예, 권위의 상징으로서 그동안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모름지기 지역사회의 발전이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할 때, 문화상이 지닌 가치는 그만큼 높고 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국운이 융성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면, 그 시대를 꽃피웠던 빛나는 문화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고대 동양문화를 꽃피웠던 백제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며, 현대에 이르러 동서문화의 막힘없는 교류속에 감각적인 서양문화가

우리 전통문화의 상당부분을 훼손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우리 고장은 민족고유 문화의 전통과 맥을, 발전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문화역량을 갖고 있다는 긍지 높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부심은 최근들어 백제문화권의 본격적인 개발과 함께 내년에 개최될 대전 EXPO를 문화박람회로 더욱 빛내고자 하는 의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번영의 연대, 통일의 연대하고 일컬어지는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 충청남도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도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차원을 넘어서, 개개인의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복지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충절과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지어진 훌륭한 정신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고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화하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분류하는 관점에서의 문화가 아니라, 넓게 생각하면 문화의 폭과 깊이는 다른 모든 부문과 불가분의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공장을 짓고, 개발을 하고, 번영과 성장을 구가하려는 모든 노력들이 문화적인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과정이며, 최근 만연되고 있는 극심한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도 건전하게 가꾸어져야 할, 문화를 몰아낸 자리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심오한 학문이나 높은 예술의 경지, 그리고 남다른 의지와 봉사정신은 우리 세대의 귀감이 되고, 이 시대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 조출한 자리이지만, 수상자여러분이 쌓아오신 자취와, 높은 뜻과

이상이, 번영된 미래를 가꾸고자 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더욱 정진하셔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각 기관장님, 내빈여러분, 수상자 가족과 친지여러분, 그리고 성원해 주신 도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뜻을 보내 드리면서 식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2월 14일

##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20여일동안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주력해오신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1년도 결산심사,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등, 어느 회기보다 많은 안건을 심의·의결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9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신뢰행정의 실천과 균형발전의 촉진, 그리고 지역 안정과 화합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모두 200만 도민의 관심과 바램이라는 인식아래,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불과 며칠 뒤면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기록될 대망의 199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소중한 의미를 갖는 93년에도 200만도민과 더불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충남도정이 알차고 착실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쏟아주신 의원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2월 21일

## 공직자의 새로운 인식과 자세

이제 열흘후면 199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인식해야 할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후에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세기 남은 7년동안 우리 도정과 공무원들이 완수해야 할 많은 과제중에서, 한 세기를 마감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공직자들의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볼때 금세기 전반기는 나라잃은 통한의 역사를 체험했고, 60년대 부터는 민족적인 대자각과 함께 근대화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오면서 이제 우리는 중진국의 선발국가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빈곤을 퇴치하였고, 식량자급 실현, 녹색 혁명 성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등을 완수하였습니다.

외교·국방면에서도 이제 우리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해서 세계 130여개 국가와 교역을 할 만큼 세계적인 큰 국가로 부상하여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최고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도 크게 성장해서 지방자치의 정착단계에 와 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았듯이 「성숙된 시민 문화」, 「성숙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

과거, 선거가 있을때마다 관권선거·금권선거가 시비거리가 되고 타락선거가 사회적인 갈등의 폭을 증폭시켰던 쓰라린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지난번 연기 사건으로 입었던 상처를 씻고, 도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우리에게 밝은 민주주의의 앞날을 확신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세기를 보내면서, 모든 분야에서 이같이 큰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은 바로 우리 도청공무원들, 크게는 내무 공무원들의 주도적인 힘과 애국적인 열정의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이 업적에 자만한 나머지 현실에 안주하거나 지나치게 감상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30년간의 여러가지 고통과 영예를 감상하거나 회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구시대의 조류가 퇴조하고, 새롭게 우리앞에 다가설 신조류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하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부임초에도 강조했던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들은 변화하는 사회조류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인의 기초적인 인식과 발상을 과감하게 고치면서, 「오늘의 도정에 대한 책임자도 우리요, 내일의 도정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도 우리」라는 소명의식을 다시한번 확인할 때입니다.

도지사부터 계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오늘의 도정과 내일의 도정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들입니다.

따라서, 국과장과 계장들, 전체 간부들이 과연, 간부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얼마만큼 충직했는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가 뼈아픈 자기

반성의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나, 계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우리 상사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보좌했는가, 상사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얼마나 떳떳하게 최선을 다했는가, 위로부터 지침을 받아 부하들에게 지시하면서 단순한 일과성 지시가 아니라 철학이 담기고 경륜이 담긴 구체적인 지침을 성의있게 전달했는가, 초급 관리자들은 상사의 지침을 얼마만큼 성의있게 창의적으로 수행했는가, 이와같은 간부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역할에 대하여, 연말을 맞이해서 한번쯤 자성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며 몇가지 당부코자 합니다.

지난 제14대 대선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1만5천여 전공무원들의 애국적인 노력,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세밀한 준비와 실천, 직접 선관위에 파견되었거나, 읍·면·동·시·군, 도상황실에서 철야하며 선거업무를 누수없이 추진해 온 전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봄, 연기군 일로 인해 상처받은 공직자의 자존심과 명예를 어느 정도 만회했다고 봅니다.

또한, 타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선거분위기가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그런대로 공명선거의 가능성을 시사해 준 우리 선거사상 초유의 가장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선거 후에는 패자의 겸허했던 모습, 승자의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도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금년이 우리 충남도정에 있어서는 영광 욕이 함께한 매우 뜻있는 한해였습니다.

영예로웠던 점은, 이번 선거를 훌륭하게 치루어냄으로써 지난번 연기사건의 상처를 씻을 수 있었고,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의 여러차례에 걸친 진지한 심의와 협의를 통해서 전체 공무원과 도민들이 충청남도의 밝은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오랜 우리 도의 숙제였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문제도 눈앞에

다가와서 가까운 시일내에 고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거의 버려진 땅, 타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소외된 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우리의 향토, 충남이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인 서해안 개발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주도해 온 각분야의 행정의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평가되고 우수한 기록으로 수상한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년의 우리 도정은 여러가지 어려웠던 점과 실의에 빠졌던 점도 있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와 거점이 확립된 뜻있는 한해 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연대, 적게는 1993년 길게는 2000년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시각과 인식을 어디에다 맞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개발연대의 행정은 관료 편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며, 목표 추구 중심으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 시대, 국제화 시대, 개방화 시대,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방행정인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행정을 중앙정부의 보조적인 측면에서 중앙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일에 힘쓰면서 주도적이기 보다는 종속적인 측면에서 일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화 시대의 행정조류에 맞게 우리 스스로가 중앙의 지원을 기대하거나 중앙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충청도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펼쳐나가야 하는 주체적인 행정을 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국장들은 우리 충청남도라고 하는 작은 정부의 국무위원, 장관이고 과장들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충남이라는 작은 정부의 최고실무책임자라는 기

본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지방행정 시대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 행정의 객체인 도민들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대다수 도민들은 산업 전선으로 나가고 도시로 유출되어 남은 분들은 고령화 된 장년층 도민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고령화된 인구, 중장년층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행정을 수행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2000년대가 되면 도시와 농어촌의 구분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도시로 진출해던 많은 인력들이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우리 도정이 상대해야 될 행정객체는 오늘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도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시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튼튼한 자립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중앙의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에 의존해서 자치단체의 재정이 지탱되고 유지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수입에 의해서 경영되고 유지되고 지탱이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항상 「자주재정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적 시각면에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요즘 언론을 통해서 자기고장의 특산품을 가지고 외국인을 상대로 판촉 활동을 하는 시장·군수등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과거의 경우 중앙계획에 의해 국가차원에서 수출문제가 논의 되던것이 이제는 지사나 시장이 국제시장에서 판로개척을 하게 까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타슈켄트시, 중국의 연변시, 헝가리의 작은시에서 한국의 조그마한 자치단체와의 결연을 희망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지방단체와 교류해야 하는 국제화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은 국제적인 감각을 몸에 익혀야 할 것입니다.

「신관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이 내각제로서 그 숭한 정변을 해마다 겪으면서 오늘의 번영된 일본, 세계 제일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일본의 관료주의에 힘입은 바 큼니다.

일본의 관료주의는 첫째, 일본인의 자존심에 기초를 두고 있고, 둘째 높은 전문성과 식견, 셋째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공복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관료로서의 전문성과 경험입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에서 보았듯이 정치적으로 합의된것도, 관료들의 학문적 자존심과 전문성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점차 전문화 되면서 전문 식견을 갖춘 의원들이 많이 의회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집행부의 간부들이 맞서서 당당하게 자기 논리를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반성해 보면서, 이제 자기 직무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연찬과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직무기법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중소기업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법령이 바뀌지 오래되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일선 공무원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는 창피하면서도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역사가 바뀌는 길목에서 자기 직무에 대해 당당하게 자기 논리를 펼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기술의 체득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민주시대에 맞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사고, 국민의 봉사자라고 하는 공직자 즉, 공복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기 직업에 대한 인식, 국제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높은 국제감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주인이고 지방 정부의 리더로서의 주체적인 생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 이것이 바로 지방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신관료」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을 맞아, 남은 10여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금년 계획사업을 마무리 점검과 추진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연내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내년으로 넘겨서 추진하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완수할 수 있는 것은 밤을 새워서라고 누수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설해·빙판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시장, 다세대 주택등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방화 대책과 연탄가스 중독 방지대책, 고지대 주민에 대한 연탄수급 문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계지원과 위로문제등 연말대책을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하여 안전한 겨울, 훈훈한 세모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말 정년퇴임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재직기간중의 노고에 대하여 같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선거로 인해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일소될 수 있도록 관청부터 앞장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거관년 담화문·게첨물, 선거관련 서류등을 말끔히 치우고, 선거벽보를 조속히 철거하여 선거분위기를 일소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촌에 버려진 폐비닐, 빈농약병, 부서진 농기계, 트랙터, 폐자동차등을 말끔히 정비하여 「새해맞이 겨울철 환경정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 1년간 의회와의 대화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도민 대표의 애기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가능한 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년도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모든 계획은 당초 계획된 시기, 즉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시기를 잘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는 시군에 대한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고, 시군을 지원·조정 해야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시군 행정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20개 시군이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도의 감독기능이 다소 둔화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행정이 방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회차원의 감독과 함께, 하급 자치단체에 대해 위임한 사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도에서 역점 추진하는 사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시군정이 착오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몇개 사업소를 방문하고 느낀 점은 도본청에서 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더 가져주어야겠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침체되어 있고, 실험기자재 등이 노후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근무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기업에서 갖추고 있는 최첨단의 시약이나 장비, 기자재를 보다 10~20년전의 장비로 시험·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사업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어야 도정이 발전하게 됩니다.

주무과와 기획관리실에서는 산하 사업소에 대해 기구, 인원, 직급조정등 사업소 전반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점, 임무·기능등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해서 「사업소 개선 활력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금년 1년 행정을 수행해 오면서 분야별로 잘된 것, 잘못된 것, 교훈적인 사례등을 발굴 선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농사를 잘 지은 농부의 사례, Sales활동을 잘 해서 외화를 많이 번 기업의 사례, 도를 빛낸 사람들, 어려운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사법·행정·기술시험에 합격한 사람, 체육선수로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사람, 어렵게 돈을 모아 장학금을 내는 사람등, 이러한 사례를 찾아서 언론에 보도도 하고 격려 서한도 내는 한편, 도정사에 남기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 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민주의식, 도산하 1만5천여 공무원들의 의연한 직무자세를 높이 평가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도민, 국민의 뜻을 결코 간과해선 안됩니다.

유권자들이 표로 나타낸 바람 등, 모든 주민의 여망과 소리를 행정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해가 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공무원의 위치는 확고하므로 관료들이 자기 직위에 대해 불안해 하거나 동요해선 안됩니다.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추호도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내년 2월 24일까지 그동안 6공화국이 벌여온 여러 일들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에서 펼치는 시책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공직기강이 강조되곤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민이나 중앙정부는 늘 우려의 시각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당직 근무등을 철저히 해서 올바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26일의 송년음악회는 도에서 운영하는 관현악단, 교향악단과 정상급 음악인 몇분을 초청해서, 1년간 노고가 많았던 공직자들의 메마른 정서를 축축히 적셔주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아 안전한 가운데 사고없고 훈훈한 세모가 되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다같이 뜻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1992년 12월 23일

## 통일위업과 선진국실현

한기수, 이대희 운영위원님.

그리고 우리도 평통자문회의 가족여러분!

오늘 한해를 결산하는 세모에 즈음하여, 금년도 평통지역협의회 활동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지역안정과 통일에 대한 지방적 의지를 굳건히 다져오신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고해보면 1992년은 우리에게 귀중한 국민적 교훈과 함께 나라 발전과 민족자존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진, 실로 의미깊은 한해였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도민적 기대와 성원속에 점차 민의의 대변기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도장으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으며, 나라의 명운을 건 14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 유권자들의 성숙된 민주 시민의식, 그리고 이를 수용하고 실천한 정부와 국민의 공명외지가 상호조화를 이루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어 한층 성숙한 선거문화를 창출해냈습니다.

걱정해온 나라경제도 물가가 안정, 경기의 회복과 함께 수출도 활력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도 크게 부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일은, 유독 남북관계만이 남북합의서 타결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온 민족이 간절하게 소망해온 이산가족문제도 한치의 진전이 없이 또 한해를 넘기게된 것입니다.

내년 1월에 열기로한 9차 남북고위회담도 북측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국내외의 상황과 여건에 비추어 북측은 결코 시대적 요청과 국제적 조류에 순응해 올것입니다.

7년뒤면 열리게될 2000년대, 21세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민족통합, 평화통일의 민족적 소망이 성취될 통일의 시대와 함께 번영된 선진조국이 실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통일위업과 선진국 실현의 민족적 소명과, 역사적 책무를 수행할 다음정부의 영도자를 우리손으로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정치·사회적 갈등과 마찰로 증폭되던 정통성의 시비도, 부정선거의 잡음도, 당선자와 낙선자간의 반목도, 모두 용해된 그런 선거를 우리는 치루어낸 실로 지혜로운 국민입니다.

우리모두 통일을 촉진하는 기반조성에, 그리고 번영을 더욱 부추기는 민주주의의 환성에 힘과 지혜를 응집시켜 나아갑시다.

끝으로 지난해 도정발전과 평화통일기반조성에 헌신적으로 기여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보다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2월 24일

## 성취와 보람의 한해

땀흘려 일한 보람과 함께 아쉬움속에 임신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에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그 정성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 고장은 한층 더 밝아지고 새롭게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믿습니다.

이제, 서기충만한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충남은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힘찬 새 출발로 신뢰와 화합의 꽃을 피우면서, 새로운 도약의 장을 활짝 열어 나갈 것입니다.

성취와 보람을 함께 창출해 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모든 일 순조롭게 결실맺으시고, 계유년 새해에는 늘 영광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92년 12월 26일

## 훈훈한 송년의 자리

보람과 아쉬움속에서 임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송년음악회는 지난 1년동안 도정수행에 힘쓴 공무원과 그 가족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로운 다짐과 화합을 위하여 조출하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세모의 지평선에 서서, 자칫 바쁜 격무 속에 정신적 여유마저 잃었을지도 모를 빈가슴 따뜻하게 채우는 훈훈한 송년의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공연은 우리고장의 충남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접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을 뿐만아니라, 한차원 더 높이 올라선 우리고장 문화수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1년은 나라안팎으로 그 어느해 보다도 변화와 격동의 진폭이 컸던 한 해였다고 회고해 봅니다.

그 격변속에서도 우리 도정은 내실있는 성장의 발길을 멈추지 않고 충남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산하 공직자는 물론 희망찬 내일의 의지를 다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 200만 도민의 역량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58) 공무원 및 그 가족을 위한 '92송년음악회 인사

---

오늘의 뜻 깊은 공연이 희망찬 신년을 맞이하여, 새해에는 마음 먹은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소망과 함께, 공무원 가족 모두의 화평과 사랑이 충만한 송년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92 하반기 정년퇴임식 치사

1992년 12월 29일

## 봉사와 헌신의 자취

먼저 오늘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 오신 일곱분의 정년퇴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귀빈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공적소개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공직의 문을 떠나시는 일곱분은 삼십년 이상을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을 위해서 바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공직의 몸을 담았던 지난 30년간을 회고해 보십시오.

30년전에 우리의 산과 들은 황폐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은 국민소득이 60불도 채 안되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들에는, 또 산에는 나무 한그루 제대로 숲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른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도록 야근하고 퇴근하는, 그 지친 모습을 여기 앉아계신 부인 일곱분께서는, 용기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내조의 공을 세워주셨고, 또 일곱분들이 공무에 지칠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이분들의 용기를 심어주고, 공인으로서의 가는 길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

도록 훌륭히 내조를 해주신 양처 일곱분을 이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곱분 부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은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사람이 칠십을 사는분도 있고 팔십을 사는분도 있습니다만, 일생을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입니다.

이 30년동안을 여기 앞에 앉아계신 일곱분들은 한결같이 가족, 개인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땀을 쏟으시고 헌신을 해오신 참으로 훌륭한 애국자이십니다.

국민소득이 60불내외였던 그 가난한 나라를 30년동안 가꾸어 오면서, 이분들이 당한 수모와 이분들이 쏟은 땀과 눈물과 피는 우리 국정사에 길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기 가족들도 같이 계십니다만, 한달에 20만원도 채 못되는 낮은 보수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부모를 봉양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애들이 병이나도 마음놓고 병원에 가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생신이 되도 고기한첩, 옷한벌, 내의한벌 사들고 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웃 친지들의 애경사가 있을때마다 어떻게 빈손으로 가느냐, 가난한 남편의 호주머니를 늘 걱정하며 여러분은 어려움을 잘 견디어 오셨습니다.

그런 보람들이 결실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갈 만큼 농업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규모, 세계 15개국에 들어갈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험벗었던 산과 들, 이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통해서, 하천개수 계획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울창한 숲, 기름진 옥토로 가꾸어 놓았습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우리 농어촌, 어디가도 옛날의 가난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업적이 지난 30년간을 살아온 전체 국민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온 국민이 「하면된다」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부에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많은 땀을 흘린 주역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일곱분, 자랑스런 공직자입니다.

우리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애국적인 노력에 대해서, 우리의 정성이 담긴 위로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법에서 정한 정년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십니다만, 여러분들이 적게는 우리 도정사에 남긴 그 빛나는 자취, 크게는 이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쏟은 값진 노고와 정열은 영원히 기록이 될 것입니다.

고통스런 지난 30년간을 회고해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감회에 젖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 어렵게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공직자의 정도를 걸어오신 그 모범된 길이야말로 남아있는 우리 후배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공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중하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금권과 야합을 해서 공직의 명예를 더럽히고 도중에 그만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앉아계시는 일곱분들은 금전의 유혹도, 권세의 유혹도 다 물리치시고 오직 충직한 국민의 공직자라고 하는 공복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훌륭히 완수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명예로운 정년퇴임의 영광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공직자는 여러분이 남긴 그 빛나는 발자취를 더럽히지 않도록,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서 여러분의 못다한 일들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부디 떠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시고,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가난했던 시절에, 내가 일생을 통해서, 내 일생에 공직생활을 통해서 애국의 길을 가장 자랑스럽게 걸어왔다고 하는 그 값있는 평가가 여러분에게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부디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남아있는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또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밖에 계시더라도 늘 격려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200만 우리 도민을 대신해서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2월 30일

## 구슬은 껴야 보배

대천시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귀빈여러분!

오늘 대천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명천동에서, 시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천시 청사 기공식을 갖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뜻깊은 기공식은 지난 86년 대천읍이 시로 승격된 이후,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소망해온 시민여러분의 의지와 지역유지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의 힘으로 이렇게 보람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과 부지확보등에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이대회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유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이곳 대천은 천혜의 피서지인 해수욕장이 있는 관광지 일뿐만 아니라, 서해안개발과 함께 최근 중국과의 수교이후 더욱 성장의 가능성과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미래의 고장입니다.

2001년까지 추진될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내년부터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해안개발의 추진으로 앞으로 이 지역은 지난 몇십년간의 발전된 모습 이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기대만큼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문제라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이기주의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구슬은 꺾야 보배”라는 말과 같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 여건을 지혜롭게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지역의 앞날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청사기공이 시민여러분의 화합된 역량을 모으고, 지역의 조화로운 성장과 번영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여러분들께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보여 주셨듯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확신과 깊은 통찰력으로 우리 고장발전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더 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신년 한해도 역사속으로 접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도정에, 시정에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미진했던 일은 경험히 반성하고 보람을 느꼈던 일은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충만하고 소망하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길 빌면서 치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2월 31일

## 한해의 값진 땀과 노력

200만 도민 여러분! 친애하는 1만 5천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다사다난했던 1992년을 보내면서 한해동안 도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값진 땀과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한해동안 새로운 도약의 터전을 마련한 성취의 보람을 함께 느끼면서, 깊은 감회속에 세모의 지평선에 서있습니다.

해마다 이 때가 되면 누구나 지난 1년간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만,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회는 어느해보다 크고, 또한 뜻이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해동안 우리 도정이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나라와 지역을 위한 정성을 다 하면서, 희망의 고장으로 부각되는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속에서 보람을 키우며, 도정발전에 함께 힘써주신 여러분의 노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정의 곳곳에서 남다른 노력으로 오늘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축하와 함께 치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발전을 기약하는  
엄숙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새로운 발전은 바로 오늘의 성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동지 여러분!

92년은 그 어느 해보다 국·내외적으로 격동과 변화의 폭이 컸던 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전후의 냉전체제와 이념적 양극체제가 붕괴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로 경제적 실리가 우선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예고된 「클린턴」시대의 개막과 북미자유협정등 경제통합체의 대두,  
그리고 「리우」지구환경회의에서 보듯, 무역과 환경부문에서 선진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시대가 급격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고내전, 인도의 힌두교도와 회교도간의 종교분쟁, 로스앤젤  
레스 흑인폭동사건, 소말리아의 기아사태등 새로운 민족분규와 종교·인종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국제적 긴장과 분쟁의 소용돌이속에 휩싸이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속에서 우리는 중진국의 선발국가로 발돋움하는 가운데, 중국·  
베트남과 새로운 국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북방정책의  
대미를 장식하고 통일로 가는 커다란 발걸음을 성큼 내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6.29 민주화 선언이후 민주주의가 사회 각 분야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국민의식의 성숙과 단합을 이루어 안정과 도약을 향한 힘찬  
발판을 구축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헌정사상 유례없이 깨끗한 「공명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오랫동안 소망해온 성숙된 민주정치의 기틀을 확립하는 뜻깊은 한  
해였음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경제면에서는 세계경제의 침체속에 7%의 높은 성장율을 달성하였고, 무역적자는  
11월말 현재 51억달러로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소비자 물가 또한 4.7%의

상승에 그쳐 경제활력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평가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별 1호」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고,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종합 7위와 함께, 감격적인 마라톤 우승으로 민족의 자긍심을 한껏 과시하는 감격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도정으로서는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변화의 흐름을 발전적으로 수용하면서, ① 신뢰행정 ② 균형발전 ③ 안정·화합의 추구속에 많은 성과와 보람을 일구어낸 한해였다고 회고됩니다.

첫째로, 신뢰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공직자의 인식과 발상, 사고와 행태의 전환을 통하여 달라진 도정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면서,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실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제도 개선과 민원실의 환경정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한 상·하수도 시설, 방범등 수선 등 2만여건의 생활민원 처리,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제도 개선, 그리고 발작물수확지원과 농기계보내기운동과 같은 실질적인 농촌 일손돕기등,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봉사의 영역과 대상을 넓히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회개원 2년차를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 새로운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14대 대통령 선거를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치루어냄으로써, 성숙된 민주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고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한 일은, 도민 모두의 큰 자부이며 긍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충절의 고장, 충청인의 높은 기상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도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쏟은 노력을 함께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근간에 이르러 서해안 시대와 함께 우리 충남이 국가발전의 중추지역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여건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새롭게

체계화하고 정립하였다는 평가를 우리는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충남의 미래상을 담은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의 수립과, 충남의 젓줄로 상징되어온 금강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일,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정지역 지정문제를 사실상 마무리 지은 일, 그리고 대전 EXPO에 대비한 35개 관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온 일 등은, 우리 지역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과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소비자 물가를 3.7%로 전국에서 가장 안정되게 관리하였고,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운영과 육성자금 지원, 판촉단의 동남아 파견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회복의 기반을 구축한 것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시·군단위 「농어촌 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상업농 육성을 위한 유통·가공시설을 확장하였으며, 신작물 「토·감」의 개발과 함께 구기자·백합 연구소의 설립, 농기계보내기 운동등도 우리가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한 성과였습니다.

세번째로, 지역안정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각계각층 도민과 격의없는 현장대화를 지속하면서 굴절없는 도민의 뜻과 소리를 도정에 반영코자 하였고, 논산 항공학교이전, 아산 인주공단등, 해묵은 집단민원의 해결 실마리를 풀어낸 일도 올해의 보람으로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그늘지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기울였고,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를 「지역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가치있는 나눔」을 소박하게 실천한 일도, 충청인의 응집력을 키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도정 각 분야에서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성과는 연말 전국단위의 각종 평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6개 전국단위 평가결과, 농정 종합대상, 농업연구최우수상, 도로·하천정비,

소방사업, 민방위행정 연찬등 9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입상하는 영광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의 노력에 의한 소중한 결과이며, '92충남도정이 알찬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정이 여러가지 성과와 보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와 사명감에 비추어 볼때, 아쉬움과 교훈으로 남아있는 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기사건은 200만 도민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큰 아픔을 안겨 주면서 「신뢰행정」의 소중함과 공직자의 바른길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개발에 따른 공해문제의 대두와 지역 이기주의의 표출은 개발전략의 근본적인 전환과 함께, 자치시대의 새로운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과제를 안겨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수해와 10월의 우박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해에 대한 우리의 사전 대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일깨워 준 산 교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향심과 인보정신에 힘입어 빠른 시일내에 복구와 함께 지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던 점에 대하여, 한해를 보내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년의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되새기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고 모색하는 일은 우리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불과 몇 시간후면 이해는 역사속의 한해로 묻혀지게 됩니다.

언제나 시간속의 마지막은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93년은 그 어느때보다 역사적·정치적·행정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소중한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긴 역사의 눈으로 볼때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데 국력을 모아 나가야 할 시기이면서, 특히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화·지방화·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큰 흐름위에서 신한국의 건설과 충남의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모두 송구영신의 길목에 서서, 다시한번 한해를 회고하고 정리하면서 희망찬 새해 설계와 함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야 할 엄숙한 시간입니다.

거듭, 한해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희망찬 새해, 축복받는 93년」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3년 1월



1993년 1월 3일

## 신한국, 새충남시대 창조

200만 도민 여러분!

친애하는 1만 5천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희망과 활기에 찬 계유년, 국가의 명운과 지역운이 걸린 1993년 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단란함속에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닭(酉)의 해입니다.

닭은 고대로부터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둠의 종말과 새벽을 알리는 길조로서 칠흙의 어둠을 가르고 여명을 알리는 鷄初鳴의 소리는 늘 우리에게 새벽의 신선함과 찬란한 일출의 희망을 안겨 줍니다.

이와같은 닭의 해를 맞아, 우리 민족사의 새로운 여명을 알리는 서기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도정으로서도 더욱 보람찬 결실을 거두고 신한국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나라가 정치·외교·경제·스포츠등 각 분야에 걸쳐 세계를 향해 큰 나래를 펴는 가운데, 우리 도정 또한 신뢰행정의 정착과 균형발전의 추구, 그리고 지역안정과 화합속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와 거점을 확립한 뜻있는 한해였습니다.

지난해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희망찬 새해의 힘찬 새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새롭게 다가온 시간은 지금 우리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한해의 할 일을 설계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 봅니다만, 올해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깊은 한해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아침은 단순히 한해가 가고 또 하나의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상의 연속점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보람찬 새 아침이며, 새로운 여명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새로 탄생되는 정부가 우리 모두의 소망인 선진조국과 통일조국으로의 도약 기틀을 마련하는 국가적인 목표와 과제를 추진함에 따라, 「안정속에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좀더 긴 역사의 눈으로 본다면, 올해는 새로운 21세기를 6년 앞둔 시대로서 21세기로 가는 변혁의 시기에, 새로운 혼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그 주인공이 되고자하는 공직자로서의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금세기 전반기에 나라 잃은 통한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60년대부터 민족적인 대자각과 함께 근대화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여 중진국의 선발 국가로 발돋움하였습니다만, 금년을 포함해서 앞으로 6년간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한 역사의 평가도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지방의회개원 3년차가 되는 해로서 보다 성숙한 자치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시기이며,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의 원년과 역사적인 대전EXPO의 개최, 그리고 대전직할시 분리이후 5년째가 되는등, 여러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소중한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정과 관련한 이와같은 의미를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지난해의 성과와 보람을 바탕으로 도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도정 구현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인 꿈이 있는 미래, 행복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튼튼한 디딤돌이 되어 각자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인식위에서 도정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도민의 새로운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결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신뢰받는 자치도정의 구현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책의 중점을 주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봉사」에 두고, 민주화, 지방화, 개방화, 국제화에 걸맞는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탈권위주의적 새로운 관료상을 정립하여 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료문화를 창출해 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현대행정이 갖는 전문성과 합리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한 시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의 유지등 관료주의의 생산적 측면이 보다 내실있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의 능률화·과학화를 촉진시키고, 자주 재정력을 확충시키며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도록 다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봉사자로서 달라진 모습, 변화된 자세를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환골의 아픔을 이겨내야만 신뢰받는 자치도정 구현이 가능합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충남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 금강 종합개발계획등을 내실있게 실천하고, 새롭게 분출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를 슬기롭게 수용해 가면서, 「자연·개발·문화」가 조화되고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여기에서 공업기반 구축은 꾸준히 추진하되, 개발이 곧 공업화라는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배제하고,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본궤도 진입과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농업 구조개선과 상업농 육성을 위한 지역특색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우리 도의 상징사업으로 본격 추진하면서, 전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관광등 관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합시다.

이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고통은 우리 모두가 분담하는 지혜를 실천할 때, 효율적인 균형발전의 성취가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안정과 화합의 실현입니다.

충청인 특유의 끈기와 저력을 바탕으로 애항의지와 지역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도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흔쾌한 참여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개행정과 여론의 폭넓은 수렴속에 「진정한 화합」의 꽃을 피우도록 우리의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도정의 시발이 되면서 또한 과정이고, 아울러 최종적인 성과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우리에게 설레임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지고 만다」고 새 출발의 소중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결코 완성은 이를 수 없지만 그 완성을 향해 쉬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보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전환의 시기에 처할때마다, 그 마디마디를 풀어내고 앞장서서 미래를 주도해 왔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변화와 전환의 흐름에서 뒤쳐지지 않고 「새로운 충남」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 공무원의 결의와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어진 역사적 과제앞에서, 상황의 피동적인 관리자로서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낼 것인가 하는 의지 여하로 귀결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공직자가 사명과 책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면서, 도민들의 성원과 신뢰가 하나로 합쳐질때, 우리 충남은 한층 더 밝아지고 윤택한 고장이 될 것입니다.

공직자가 오만한 자세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국민이 반발해온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새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용기있게 실천하는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역사가 변화를 요구할 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통해 신한국 건설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모아지고 있는 올해, 우리 모두 손을 마주잡고 눈부신 새 아침의 햇살을 가슴으로 받으며, 밝고 희망찬 「새충남 시대, 신한국 시대」의 창조를 위하여 힘차게 출발합시다.

아무쪼록, 1993년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도정에 대하여 소망스런 결실과 무한한 축복을 기약하는 한해로 일구어 갈 것을 함께 다짐하면서,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1993년 1월 4일

## “새 시대의 지평”

새해 복많이 받으셨습니까,

해마다 새해 벽두에 각계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덕담을 나누며 교환할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대전일보사와 대전상공회의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칠혹같은 어둠을 가르며 여명을 알리는 계초명의 소리는 늘 우리에게 새벽의 신선함과 선명한 일출의 희망을 안겨줍니다.

첫닭울음 소리가 주는 교훈이 이러하듯이, 1993년 계유년 새해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한국 건설, 새시대의 지평이 펼쳐질 것으로 온 국민의 기대와 소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대의 시대적 과제인, 민족통합과 남북통일의 대업이 성취되고, 선진국 진입의 숙원이 이루어질 21세기, 그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할 새정부가 온 겨레의 축복속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운상승의 호기를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 충청권 무대접의 좌절과 허탈감을 딛고, 이제 분연히 힘을 모아 일어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서해안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한 특정지역 고시가, 그리고 '93대전EXPO가 바로 우리 300만 충청인의 하나로 응집된 힘과 단합된 협동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난에 임해서 충절의 기상을 행동으로 표출했던 충의로운 전통, 불의에 의연했던 충청인의 기품을 바로 행동과 실천으로 되살릴 1993년입니다.

새롭게 전개될 신한국 건설에 우리 충청인의 단합된 힘이 밑거름이 되고, 충청권의 본격적인 개발이 구체화 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인 모두가 하나같이 단합하는 계유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그런 기풍이 온 충청권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도록 자리를 함께하신 우리들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참여해 주시고, 주도해 주실 것을 외람되게 제의합니다.

끝으로 지난해 도정에 큰 힘을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는 우리 충청인 모두 신바람나게 일하고 살맛나는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받는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1993년 1월 14일

## 새로운 인식과 발상

지난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여러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영예를 이룩한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는 충남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증좌입니다.

지난해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충격을 안겨준 해였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서 전국단위 평가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어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를 보냅니다.

또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부여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준 전 공직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5년간의 국정성과중 가장 큰 결실은 민주주의를 성숙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고 통치자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6.29선언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의 어려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장족의 발전으로 성숙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정치의 민주화에 비례해서 행정의 민주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 그간의 행정행태, 행정 수행방법, 민주봉사 자세등을 반성해 보면서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은 「문민정부」가 출범하는 첫해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속에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안정속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이 변화하고 개혁되면 이를 통해 국정이 개혁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의 자세 쇄신과 지금보다는 다른 혁신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남은 농업이 산업의 대종을 이루고 전체 도민의 48%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도」입니다.

우리도의 특수여건, 농업도의 여건을 살리는 행정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은 현재 농촌의 실정, 즉 농업경영상의 애로점, 농업 구조상의 취약점등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립 추진하여야 합니다. UR에 대비, 국민에게 Sales mind를 심어주어 정신개혁을 유도하고 농업 기반의 근대화, 경영구조의 개선, 유통구조 개선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림정책은 그간의 심고 가꾸는 육림·식수위주의 산림정책에서 계획적인 조림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산림이 소득원이 되고, 도시 공해, 스트레스등으로 시달리는 도시인에게 위락·휴양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휴양림 조성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참나무 자생지대에는 참나무가 자라도록 하는등 자연생태에 맞게 조림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 중국산 임산물 수입에 대응, 우리 농산물의 포장 고급화등으로 임업 소득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임업행정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수산분야에 있어서 서해안개발에 따라 어업권 보상문제등이 제기되므로 서해안 양식업 면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저수지, 호수등이 오염되고 있으므로 내수면 어업확대문제도 보다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환경적 폐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면서 수산행정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연근해 어업에서 원양어업으로, 수산법인등을 만들어 먼바다에서의 대단위 어업으로 경영과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남은 농업도의 전통을 지키고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생산성을 보완하는 선에서의 공업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경기등을 감안, 공영개발을 통한 공단조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미래예측을 통한 신중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공단에는 가능한 한 계열화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 애로 타개, 시장 개척, 판로확보등 경영지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상정분야에 있어서는 재래시장을 점차 근대화시켜 새로운 유통문화가 농촌까지 파급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상공부의 유통 근대화 자금등을 활용, 시장조합을 통·폐합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통과정의 근대화 못지않게 새로운 상품지식에 대한 보급도 중요하므로 여성·소비자단체등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상품지식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시장물가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물가안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날전후 물가, 봄물가 대책도 완벽하게 수립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금년부터 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은 가정쓰레기, 지역경제국은 산업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입니다.

쓰레기중 재활용 불가능한 것, 연소가능한 것등 분리수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쓰레기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일입니다.

소각, 재활용, 매립등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신규병원 법인 허가시에는 일정 병상수를 「노인병 클리닉센터」로 시설토록 행정부관을 붙여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5개 도립 의료원의 기존 병상수 일부를 할애해서 노인병 전문 치료클리닉 센터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각종 여성단체들이 설립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조장해 주어야 합니다.

고학력 주부가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사회 복지시설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분야, 특히 도시계획 등 주민 이해관련 분야는 입안과정에서 부터 공청회등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새로운 기법·공법연구등 끊임없는 자기연찬과 함께 각종 공사의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행정·신뢰행정을 추구하고 주기를 당부합니다.

가로수 식재, 방향표식판, 차선도색등의 작업은 6월말까지 완료해서 EXPO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개발에 따른 체계적인 하천 개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질의 사력토는 건축 자재로 활용토록 시군에서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위험 부분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수해방지 조치를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소방분야에 있어 건물의 고층화, 복합화에 따라 소방행정도 쇄신되어야 합니다. 소화기 비치, 소화전 작동여부 점검등으로 화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소방관에 대한 사명감, 소방직에 대한 천직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강사는 가급적 고학력자, 강의능력이 있는분, 지도력 있는분을 위촉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농촌지역까지 고층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서 추세입니다.

화재, 단수시등에 대비한 비상구호 훈련등 실질적 훈련에 중점을 두어 재난대비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농업도 상업농·기업농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농촌 지도직, 시험연구직 공무원들의 사명감이 크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새로운 영농기법, 경영기법을 개발·보급하고 4H, 농어민 후계자가 용기를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가일층 분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밝힌 도정 기본방향을 토대로 실국별 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간의 업무보고회는 상향식 보고회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실국 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 실국 행정을 해당 국장이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실국장 중심의 행정수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국장들이 자기 분야의 행정을 총괄, 전직원을 모아놓고 교육겸 지침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의된 의견을 종합해서 지사에게 보고도 하고, 도정시책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도민을 대상으로 도정설명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농민, 국민운동단체등 각계각층을 모아서 금년도 도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향후 2000년대의 충남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도정에 대한 희망, 향토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약속한 여러가지 공약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약사항을 타지역에 우선해서 이행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머리로 생각하고 발로 뛰는 해로 삼아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새 정부의 공약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과감한 예산확보 노력과 로비활동을 전개해 주기 바랍니다.

도의회 의원 개개인은 「200만도민의 대표자」라는 기본인식 아래, 예우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법규정에 명시된 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의회를 모든 시책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 바로 도정의 홍보입니다.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운영 3년차를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조화와 견제를 이루는 새로운 의회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몇가지 당부코자 합니다.

장학기금을 설립하려는 근본취지는 장래성있는 지역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 전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장차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도의 경우 학사건립을 추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도에서도 검토한바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결론을 모았습니다.

1차 목표는 100억, 장차 300억정도 마련하려 합니다. 최고의 장학금, 최상의 경제적 지원으로 도내 최고 권위의 장학제도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명칭문제, 도와 시군의 기능 정립문제, 장학금 지원방법, 지급액, 선발방법등을 시간을 갖고 깊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몇가지 더 당부하고자 합니다.

목장, 상전의 보존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폐지·육성방안등을 재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국정인수위에 보고한 민원 재심제도와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과 운영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국정인수위에 보고한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문제와 관련, 연기·공주군 관내 그린벨트 실태를 심사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연기군 사건, 우박 피해, 수해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정을 믿음직스럽게 수행해 왔고 도민으로부터도 따뜻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공직자가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식과 발상·사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시책 등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실용주의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자세를 쇄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있는 공직자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의미를 깊이 수용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들이 알차게 결실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분발과 간부공무원들의 단합을 촉구합니다.

1993년 1월 19일

## 민주자치 행정의 산실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내빈 여러분,

오늘 태안군민의 오랜 숙원인 군청사를 새로 짓고, 준공식을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군민여러분과 함께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더욱이 오늘 계유년 새해 벽두에 서해의 명산 백화산을 마주보며, 무한한 우리 고장의 寶庫이자 미래의 희망인 태안반도의 중앙에 이처럼 훌륭한 청사를 갖게 된것을 우리 모두 자축하면서, 이 고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75년만에 태안군으로 복권이 되고 8만여 태안군민의 자존의 긍지와 명예를 되찾은데다, 바야흐로 개막된 서해안시대의 중핵적 기능을 갖추게 됨으로써, 우리 태안이 통일과 번영이 기대되는 2000년대를 선도하는 서해안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8만 태안군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훌륭한 새 청사를 갖추게 된것을 경축하는 것도 뜻이 있습니다만, 이 훌륭한 새 청사에서 진실로 주민을 위하는 참 봉사행정이 구현되고, 8만군민들의 소박한 여망과 소망이 굴절없이 수렴되고 반영되는 민주행정, 자치행정의 산실이

되도록 소중하게 가꾸고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태안은 일찌기 대륙과 해상문명의 관문이 되어 왔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안개발과 중국과의 수교로 앞으로 더욱 성장가능성과 함께, 문화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의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미래의 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곳 태안은 개발과 관련하여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고장이 더 큰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도, 지역간·부문간 균형된 발전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발전의 가능성과 개발이익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흐름까지도 끌어들이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와 단합된 역량을 가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여러분의 화합된 의지와 힘이 모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청사준공이 단순한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이곳 태안이 서해안시대의 꿈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화합된 역량과 발전의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마련된 청사준공이라는 의미와 함께, 안정속에 변화와 개혁의 신선한 기운이 우리 고장에서 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도정과 군정,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더 큰 힘을 모으고 성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월 19일

## 행정은 영속한 과정

지난해 부임초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두번째 만납시다만,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청사에서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청사를 짓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고, 또 개청이래 임시 청사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청사를 지면서 새청사에 오늘 입주를 했습니다만, 역시 과정이 참 얼마나 중요한것인가, 이렇게 좋은 청사를 짓기까지 땅을 회사해준 우리 주민들, 건설 현장에서 고생한 인부들, 기술자들 또 직접 공사를 지휘·감독한 군청 관계 공무원들 모두 땀을 흘리고 수고들 많이 했겠지만, 보람이 이렇게 훌륭한 청사가 결실되었듯이, 우리가 정부 수립후 근 반세기동안 민주주의를 위한 끈질긴 투쟁을 해왔는데, 그런 보람들이 성취가 되어 머지않아 문민정부가 발족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하는 교훈을 시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지만, 새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정책의 기조는 신한국의 건설, 즉 우리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폐단, 이런것들을 한국병이라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명명하고

한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한국병을 퇴치하자, 그 기초위에서 신한국을 건설하자는 것이 새정부의 정책 기초이고 방향입니다.

신한국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앞으로 여러가지 정책이 제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만, 짧은 기간동안 국민소득이 8,000불에 가까울만큼 눈부신 발전을 해온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로 많은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공해문제로, 또는 주택의 부족 문제로, 교통의 체증 문제로, 또 실업의 문제로 여러가지 한국병을 표출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제 이런 한국병을 씻어내고 새로운 국정을 펴 나가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군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세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째는 탈관료주의, 우리가 오랜동안 경직된 행정을 해오면서 우리 정부가 내부에 형성된 권위주의적인 문화, 권위주의적인 행정, 이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탈권위주의, 탈권위주의적 행정문화, 이것을 우선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또 행정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주권자로서 대접해 주는 사회 즉, 이것이 민주행정인데 그동안 우리 행정내부에 장애요인이 되었던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문제가 제일의 선결된 과제이고, 두번째는 행정의 민주화를 구현하는 문제입니다.

민주적인 봉사, 민주적인 행정, 우리가 건국후 지금까지 늘 민주행정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은 민주행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의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 행정은 거기에 맞도록 적응하도록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문제, 세번째는 우리 행정에 바라는 주민들의 소망을 우리 행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한 일관성 있는 시책의 추진, 그를 바탕으로한 행정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는 문제, 이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됩니다.

특히 내가 강조하고 싶은것은 금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 변화와 개혁이 뒤따르는 해,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안정속의 개혁을 주창하고 계십니다만, 이 안정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기본적인 맥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행정 내부에 적체된 각종 부조리스러운 일, 비합리적인 일, 모순된 사항 이런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한 국회보다는, 의회보다는 직접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법의 취약점, 문제점, 비합리성, 가장 근거리에서,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개혁의 시기에 즈음해서,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적출하고, 또 위에다가 건의하고, 또 자치입법의 경우는 스스로 의회에 문제 제기를 해서 고쳐 나가는, 이러한 개혁의 의지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태안군과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이제 여러분의 소망이던 청사가 훌륭하게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이 청사를 훌륭하게 갖춘데 자족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훌륭한 청사가 크게는 우리 태안군의 자의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추진하는 그런 개발 행정의 실질적인 산실이 되고, 또 센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든 8만 태안 군민들의 그 희망과 기대를 이 군청에서 수렴을 하고 그것이 주민에게 알찬 청사진이 되어서,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그러한 개발 행정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새청사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또 주민의 모든 민의가 수렴이 되고 여기에서 여과가 되고 시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주민에게 복지 행정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민원 행정의, 복지행정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태안의 신청사는 8만 군민들이 어떠한 어려움, 지역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혼연히 찾아와서 여러분과 같이 상담을 하고 타개책을 같이 걱정하는, 그러한 민의의 수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합청사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러 청사를 다녀봤지만 가장 규모면에서나 또는 내용면에서나 아주 훌륭한 청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전체 태안 공무원은 말할것도 없지만 군민이 태안군에 대한 애정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변화로서 역할을 하도록 청사가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다행히 종합 청사로서 여기 지도소가 있고 또 의회도 들어와 있고, 종합청사로서의 기능을 훌륭하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작금 소원면에 산업폐기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또 그동안 잠잠했던 안면도의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와 관련해서, 다소 여러분들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방침이나 정부의 방침이 주민이 반대하고 또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이런 시설은 절대 강제적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럼 그 지역이 적지라고 판단되고 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할때 계속,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설득을 통해서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을 기울일 망정,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우리 여기 읍면장들, 또 우리 군의 간부들의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주민과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태안이 서해안 시대와 때를 같이해서 각광받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시차를 줄이는 것도 전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오늘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내일의 태안군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의 개화의 결실은 돌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태하고 여러분이 비전없는 행정을 하면 이 지역은 발전을 못합니다. 우리도만 하더라도 아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다 개발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이런 그 기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수용하느냐! 그건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결국 돌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지역은 옛날부터 태안반도의 중심 위치에 있어 행정적으로도 중심이 되었지만 군사요충지로서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발전이 기대가 되지만, 오늘 태안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개발은 그만큼 가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낙후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사항과 관련해서 내일 모레면 설입니다만, 명절의 의미를 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축제 무드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추진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농촌을 가보아도 지금은 노인들만 남아 있어 고향을 찾는 도시에 나간 젊은이들에게도 귀향객들에게는 자기 지역에 대한 자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남아있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출향인사와 남아있는 주민과 사이에 접목하는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웃놀이도 좀 권장하고, 농악도 좀 권장을 하고 젊은애들한테는 제기차기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통 민속이 이번 설날전후 재현되는 가운데서, 나가있는 사람과 여기앉아 있는 사람과 같이 지역 문제를 걱정하고, 적게는 자기노모, 노부모들의 노후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군은 지휘보고를 봤더니 군마다 마을마다 일정의 시상금을 주어서 그런 놀이를 권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만, 방법이 어쨌든간에 고유의 우리의 명절이 퇴색되지 않도록, 근대화의 물결에 퇴색되지 않고 면면히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자축을 하고, 또 우리 태안군의 복군과 함께 새 청사의 준공을 축하하면서 지역문제, 지역의 장래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기후의 이변이 많은 곳인데, 설날 전후 적설로 해서 귀향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행정력을 기울여서 모처럼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흐뭇한 모양, 흐뭇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터미널이라든지 기타 버스정류장 또 길, 항구등에 대한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겠습니다.

다시한번 청사 신축 과정에 고생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마음으로 부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매우 어려운 중요한 변환기에 처해있습니다만, 흔들림없는 공직자들이 뚜렷한 확고한 신념과 공직관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과제를 지혜롭게 잘 수용을 해서 금년 한해 보람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 개혁에 대한 기대가 다시 나타나서 문민정치의 내실이 바로 국민들한테 결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 제39주년 세계자유의 날 행사 격려사

1993년 1월 20일

## 현명한 선택

친애하는 자유용사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지난 39년전, 한국전쟁 당시 전쟁 포로로 억류되었던 반공청년들이 공산치하로 송환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게 된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는 먼저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안고 우리 도민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면서, 지난 39년동안 자유 민주 체제의 수호에 앞장서 오신 자유용사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반세기동안 일제치하에서 굴욕스런 역사를 체험했던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이데올로기 분쟁의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찌든 가난과 싸우는 것만도 힘겨운 일인데, 때아닌 전쟁에 이끌려 국토는 초토화되고, 지금까지도 1천만 이산가족은 가슴속에 한을 맺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혈기 넘치던 청년들도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아직도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명예를 진 전선의 총구는 반세기의 허망한 세월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0여년, 우리 민족은 전쟁의 잣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세계를 앞장서 주도하는 자랑스런 나라를 우리는

가꾸어 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한 자유민주 체제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였는지는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몰락하고 동구권이 붕괴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허구에 찬 것인가를 직접 겪었던 여러분들이기에 그 감회는 더욱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유용사 가족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낡은 유산을 버리지 못하고, 분단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현실속에 있습니다.

또한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나라와 민족간의 이익추구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냉엄한 국제사회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크게 두가지 과제, 즉 민족통합의 과제, 또 하나는 민족번영의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그 자체가, 미래를 향한 하나의 민족사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며, 우리 내부에서 부터 안정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대보다는 우리가 먼저 사회내부에서 부터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게 하고, 통일과 번영을 위한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신한국건설이 나라의 번영과,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신선한 물줄기가 되고 통일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통일의지에 대한 지방적 힘을 모으고, 번영을 위한 지역안정과 화합된 역량을 모으고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1993년 1월 20일 (197)

---

아무쪼록 이 자리가 안정속에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들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희망찬 새해에,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로운 삶을 위해, 그리고 민족의 영원인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정성과 혼신의 힘을 다하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회 준비에 힘쓰신 대한반공청년회 한석복 도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격려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월 27일

## 다같이 뛰는 경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남지부 제26회 정기총회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고, 도정발전에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해에는 국가진운을 우리 스스로 선택했던 양대 선거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각국의 보호무역과 지역주의 추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 였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을 회고해볼 때, 여러 계층의 자기몫 확대요구에 따른 진통과 민주화에 따른 전환기적 갈등이 동시다발로 표출되어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규모는 2배이상 신장되었고,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을 튼튼히 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향한 착실한 기반을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치열한 국제 경쟁속에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경쟁력제고를 통해 국제수지도 개선해야 되고 물가도 안정시켜야 하며 복지도 늘려서 선진 경제로의 진입을 가속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한달후에 출범할 새정부는 「신한국 건설」의 기치 아래, 「신경제」라는 정책 구상을 밝힌바 있습니다.

신경제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뛰는 경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인하 조치가 단행되는 등 「안정속에 변화와 개혁」에 보조를 같이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한층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경제 정책기조도 자유경쟁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모든 계층의 어려움과 욕구가 당장 순조롭게 풀리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공동체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회원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공사수주와 함께 자본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공사협회 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가 스스로 공정한 경쟁과 질서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히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바야흐로 기술의 혁신, 경영의 혁신없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틀속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도 국제화, 개방화 되어가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각개약진해 가면서, 지역경제 활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 그리고 새로운 기운이 피어 오르는 계유년 새해에, 회원 여러분의 다짐과 각오, 알찬 계획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신뢰행정, 발전행정을 펴나가는 우리 도정에도 여러 회

(200)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남지부 제26회 정기총회 인사

---

원님들이 알뜰한 반려자가 되어 주시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 주창현 충남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월 28일

## 이해와 신뢰의 바탕위에서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올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진정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이대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 기관장님을 비롯한 언론사에 대하여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해 7월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성실히 수렴하고, 도정의 많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지역의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상호협력의 노력을 기울여 옴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도장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대규모 지역종합개발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지역의 발전을 앞

당기는 활력소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내빈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새로운 국정에 대한 선택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중한 결단인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문화를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충청인의 높은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200만 도민의 뜻을 겸허히 헤아리면서, 올해 계획한 일을 알차게 마무리 짓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소중한 한해가 될 93년을 맞을 준비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의원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도정에 대한 뜨거운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93년에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의회와 집행부가 이해와 신뢰의 바탕위에서 충남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보다 큰 성취의 보람과 함께 온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월 28일

## 새로운 도정, 발전된 도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희망과 기대에 찬 계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70회 임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21세기를 향한 신한국 창조의 첫해로서 「안정속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할 「새로운 출발의 시기」입니다.

우리 도정으로서도 백제문화권개발과 서해안개발의 본격적인 추진, 그리고 대전 EXPO개최등 충남 발전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해로서, 도민 모두의 소망과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도 큰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을것입니다만, 저는 특히 여러가지로 소중한 의미를 지닌 한해를 맞아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새삼 절감하면서, 200만 도민의 뜻을 보아 우리도정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적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국정의 큰 흐름을 차질없이 지방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첫째 신뢰행정의 실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책의 중점을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봉사행정」에 두고 도민과 함께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의 참모습을 부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둘째 균형발전의 추구입니다.

새롭게 분출하는 도민의 발전욕구를 수용하는 가운데 백제문화권개발, 서해안 개발사업등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가시화시키면서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21세기를 향한 충남의 미래상을 착실히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화합·안정의 구축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새로운 도민적 단합과 참여가 소중하게 요구되는 시기임을 감안해서, 우리충청인 특유의 끈기와 저력은 지역의 발전 역량으로 결집하고 승화시킴으로써 「진정한 화합」의 꽃을 피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큰 획이 되었던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3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쌓아온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동반·협력의 자치문화를 정착·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도정」 「발전된 도정」의 모습을 창출해 나가는데 온간 정성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2월



1993년 2월 1일

## “신행정문화 창달”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계유년 새해도 이제 한달이 지나고 2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월은 우리에게 매우 분주한 달이었습니다.

새해 업무계획을 손질하고 다듬는 가운데 새로운 행정토론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실국별 업무계획 설명회를 열어 격의없는 업무토론을 벌인 큰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면, 노태우대통령의 고별순시, 현승중 국무총리의 EXPO현장순시등 매우 바쁘게 보낸 한달이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재임중 스무차례나 우리 도를 시찰하신 대통령께서는 현충사를 참배하시는 자리에서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충무공의 유혼을 강조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 공직자의 본분과 자세를 강조하신바 있습니다.

이어서 부여박물관과 신축중인 부여 청소년 수련장을 시찰하시는 자리에서 한국을 찾는 많은 일본관광객들로 하여금 일본문화의 뿌리가 바로 백제문화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부여 청소년회관을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에게도 수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설날 전후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휴일을 반납한채 헌신적으로 봉사한 보람으로 대형사고나 큰 사건없이 비교적 평온한 설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충직한 봉사와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2월입니다. 2월은 계절적으로 개춘의 시기입니다.

일년의 시작이 1월이지만 실질적인 출발의 시기는 2월입니다.

2월을 소중하게 보내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월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달이기도 합니다.

실로 반세기만에 출범하는 문민정부의 역사적인 의미와 소중한 가치를 깊이 음미하면서, 우리 지방정부와 지방청 공무원들의 책임과 사명을 깊이 새겨야 할 시기입니다.

늘 강조한바 있습니다만, 가속화하는 민주발전의 추세에 따라서 우리의 공직사회 내부도 과감한 개혁과 민주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주의적 사고와 발상을 삼제하고 민주적 사고와 행태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그 첫번째 과제이고, 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가치관을 지배나 통치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봉사와 조장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두번째 과제입니다.

또한 실용성과 합리성, 타당성을 추구하는 신관료주의적 행정문화를 창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세번째 과제입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지금 도민들은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이양기에 과연 공직자들이 동요없이 소임에 충실하고 있는지,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는지, 직업관료로서 그 본분에 충실하고 있는지, 우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주민들의 시선을 우리는 눈여겨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도내 소비자 물가가 전국 수준이라는 신문보도나, 보신주의적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를 비난하는 국민의 소리에 우리 모두 겸허하게 경청하고 반성해야 할 줄 압니다.

정부는 바뀌어도 행정은 영속하는 것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행정이양기에 우리 행정인의 모습이 국민에게 이완되거나 책임없는 모습으로 투영되지 않도록 각자 부여된 소임을 열심히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롭게 일하는 행정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바람이 전 기업과 민간에게 두루 확산되도록, 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올해 계획한 사업계획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금년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도민에 대한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하나하나 면밀하게 점검하여 적기에 계획된 사업들이 착수되어 소담한 성과로 도민에게 제시되도록 그 착수를 이달에 하기 바랍니다.

셋째 겨울철 영농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개방 압력과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대량 유입등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오늘의 국제경제의 조류를 이해시키고 신농사기술과 정보를 소개하고, 농업경영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는 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실의와 좌절에 빠진 농민들에게 상업농, 기업농의 의지를 심어주고 선진 농사 사례등을 깊이있게 소개하며, 생계농업적 영역에서 탈피하여 고소득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상업농의 마인드를 일깨워 주는 산 교육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은 해빙기입니다.

각종 공사장의 안전점검, 축대, 도로, 사업장의 절개지, 막힌 하수구와 하천의 퇴적사등,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요인을 일제히 점검하고 취약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이달내에 완전 보완하여 한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2월 25일 14대 대통령 취임을 전후하여 경축분위기와 새로운 출발, 신한국 건설을 향하여 함께 뛰며 일하는 분위기가 전 도역에 확산되도록 마을단위, 읍면

단위, 시군단위의 다짐대회등이 자율적으로 개최되도록 국민운동단체와의 활발한 활동을 도모해 주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 서해안지역 곳곳에 개발의 진통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태안 앞바다의 기름 피해,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르는 어장의 피해, 보령댐 건설에 따르는 수몰지역 주민의 과도한 보상요구등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분석·파악하여 직접 주민들과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혜로운 타개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금년은 또한 책의 해입니다.

각종 시청각 미디어의 발달과 안이한 생활관습등으로 책을 멀리하는 작금의 세태에 비추어, 책의 해 선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옛선비들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긴다」고 할만큼 독서의 소중함을 실천해 왔습니다.

책속에 진리와 지혜가 있음을 상기하여 바쁜 생활이지만 한편의 양서라도 가까이 하는 풍토가 우리 직장내에 정착하도록, 일대 독서운동을 우리 본청부터 펼쳐줄 것을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신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강조되고 1993년 국운과 우리 지역운이 걸린 계유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뛰고, 또 뛰어야 할 소중한 때입니다.

실질적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구 시대적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구태를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체제의 유산이 청산되고, 그 자리에 국익을 위한 경제 경쟁체제가 새로운 이념이 되어 숨가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경제지역주의가 더욱 큰

울타리를 높이는 기이한 지구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경제시대입니다.

이념이 몰락하는 가운데 국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혼돈속의 새 질서가 예고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한국으로 가는 변혁의 시기, 1993년에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혼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그 주인이 되고자 하는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다져 나갑시다.

공직자가 오만한 자세로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면 부정부패는 만연하고 국민은 반항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신정부가 제일차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강직하고 청렴한 공무원상을 실현하는데 환골의 아픔을 극복하면서, 신뢰받는 행정, 믿음을 주는 행정으로 신한국 공직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도록 자아혁명을 실현해 나갑시다.

1993년 2월 4일

##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며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 공식적인 이사회를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여러분을 뵙고 이사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선등 여러가지 당면한일로 오늘에야 비로소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는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체육이 대전시가 분리된이후 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체육저변의 인구나 도세가 크게 약화된 상황속에서 우리 체육계 이사님들 그리고, 전 체육인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보람으로 나름대로 충남체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지난해 대구체전에서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불굴의 투혼을 발휘해 충남의 명예를 선양시킨 체육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인근 대전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고장은 아니지만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우리 충남체육이 다시 한번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만으로는 전국대회를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계기로 해서 우리 충남지방에 있는 체육시설이 천안, 공주, 온양등 시·군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시한번 손질하고 보완해서 이번 계재에 충남체육의 낙후성을 면해 보자는것이 1차적인 과제이고, 두번째로 인근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으로 충남체육의 저변을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조기에 강화훈련을 실시해서, 충남체육이 내년 대전체육을 계기로해서 10위권 이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세가 약화된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체육인 여러분들의 체육에 대한 집념과 또 전체 도민들의 체육에 대한 성원이 모아진다면, 내년 대전체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충남체육도 제자리로 진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 대한 우리 충남체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더 많은 편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충남체육 발전을 위한 뜻있는 벽두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서없이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1993년 2월 4일

##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서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벽두 공사간 다망하신 중에도 충청남도체육회 발전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신 회장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자리를 같이하신 체육회 출입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시를 분리 독립시킨 이후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약화된 도세속에서 지난 4년간 나름대로 충남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신 대의원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참여와 봉사가 결실이 되어서, 지난 대구체전에서 보았듯이 이제 충남체육이 밝은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큰 성장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우리 충남이 짧은 기간동안에 도약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해주신 대의원님들의 숨은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올림픽에서의 성적이 그 나라의 국력의 대외적인 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림픽에서 상위권에서 입상하는 나라는 그마만큼 그 나라의 국력이 크다는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대회에서 충청남도가 12위에서 11위로 점프를 했습니다만,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짧은 기간동안에 이만큼 발돋움을 했다고 하는것은 바로 우리 충청남도의 도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금년이 1993년이 됩니다만 7년이 되면 21세기가 전개가 됩니다.

21세기는 우리 모두 국민들에게 무한한 꿈과 기대와 희망을 주는 그런 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시대가 해결해야 하는 민족통합의 과제, 즉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의 역망이 성취되는 해로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우리가 그처럼 고대하던 번영의 나라, 즉 선진국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이 매우 소중한 역사적인 시점으로 보는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충남체육도 한차원 높게 발돋움하는 그런 절호의 계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엘리트 체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평가가 점차 약화되고, 이는 그런 가운데서 또한 한편으로는 엘리트체육 보다 국민체육, 생활체육, 대중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서 도의 명예를 이분들에게 짊어지게 해서 나아가서 뛰게하는것이 그렇게 쉬운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도 회장님들께서 충남체육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희생과 봉사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부터는 더욱더 높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지만, 금년 충청남도체육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단계 더 비약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체육을 위해서 힘써주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16) 체육회 대의원 총회 인사

---

충청남도 체육의 오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일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협조되고 논의되는, 뜻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두서없이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2월 6일

## 영속적인 국민운동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일선에서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고 계신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컨데, 우리민족 5000년 역사중에서 20세기만큼 큰 변화와 격동의 시련을 겪은 때도 없었습니다.

구한말, 세계열강의 세력 다툼속에서 약소국가로서의 서러움을 겪으며 맞이해야 했던 20세기, 그 반세기 가까이를 일제치하에서 신음해야 했고, 누구도 원치않던 전쟁을 치르면서 국토는 허리가 잘린채, 또 다시 찌든 가난과 싸워야 했던 아픈 20세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역사를 반전시키고 세기의 변화와 기적을 일으켰던 계기가 있다면, 바로 잘살기운동인 새마을운동이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가치도, 그 열기도 변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근본정신 만큼은 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비록 나혼자만이 갖는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새마을운동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에 맞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면서, 국민정신 함양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운동」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내고장 활력화 운동」,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내고장 환경가꾸기 운동」등 3대운동을 전개하여,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7년을 앞둔 대망의 2000년대, 민족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게 될 21세기를 앞두고, 새마을가족들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70년대 새마을운동이 물질적인 풍요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그 풍요에 걸맞는,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선진 국민의식을 우리 새마을가족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새봄을 맞이하여 탄생될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앞으로의 5년은 과연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통일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인들의 기억속에 지워진 약소민족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인들의 주목 받는 자랑스러운 당당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욕의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역사속에 서있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서 오늘 한해의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하는 이 자리는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180여일을 앞둔 대전EXPO를 전국민적 축제로 치룰 수 있도록 공원화사업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충효와 예절, 그리고 선진된 문화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전세계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새마을운동의 내실있는 추진과 함께 우리 도정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격려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2월 10일

## “택시는 나라의 얼굴”

평소 충청남도 택시사업을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는 신호균 이사장님, 또 우리 택시업계 대표여러분,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보다 큰 행운과 영광이 함께하는 소중한 한해가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충청남도 택시업계의 고민과 내일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중요한 협의를 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대중교통수단의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택시가 돈이 있는 사람, 아주 급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선별해서 탈 수 있는 고급 교통수단인데 반해서 우리의 경우에는 택시가 완전히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사간의 갈등문제, 도로사정, 교통체증, 또 신이사장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불합리한 세제등, 여러가지 환경을 잘 극복해 가시면서 훌륭한 도민들의 발의 역할을 해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택시가 들어온 것이 꼭 80년째가 됩니다.

한일합방후에 택시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그후 반세기동안 일제의 질곡 속에서 지내면서 택시아말로 귀족이나 상류계급이 아니면 탈 수 없는 그런 사치스러운 교통수단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일제말엽에 2차세계대전중에는 택시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서 중소도시에서는 거의 택시를 구경할 수 없었던 어려웠던 시절도 경험했습니다.

정부수립후 시발택시, 또는 미군이 불하한 중고차를 가지고 시작한 우리택시업은 이제는 우리손으로 만든 중형차, 또는 대형차까지도 택시로 진출할만큼 우리의 자동차공업이 크게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자동차공업, 운수행정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충청남도 운수업계 원로 여러분들, 또 사주여러분들의 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택시아말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진국처럼 고급교통수단으로 상향 발전할 것인가, 여러가지 정책적인 전환을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의 여러가지 도로사정, 교통사정으로 볼때 당분간은 여전히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가지 여러분들을 뵈김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택시는 흔히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맨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짐검사, 여권검사 즉 입국수속에 임하는 관리들의 자세와 언행이 얼마만큼 친절하고 겸손한가, 하는것이 그 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다음에 흠을 나와서 기다리게 되는것이 택시나 버스입니다.

대부분 지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만, 우선 차종이 얼마나 깨끗한 차인가, 중형차인가, 내짐을 싣고 갈 수 있는 차인가, 하는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차를 타게 되면 실내를 한번 보게 됩니다.

더우기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하며 행동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물론 물질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일반국민들의 사고와 행동과 의식의 선진화입니다.

선진국가 국민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을만큼, 또 선진국 국민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만큼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가 행동으로 나타날때, 우리는 그 나라국민을 선진국 국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머지않아 이제 EXPO를 맞이하게 됩니다만, 이 EXPO를 치룬 나라치고 선진국이 안된 나라가 없고, 또 EXPO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치루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우리 대전, 충남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약 1,000만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의 외국사람들이 우리고장을 찾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중에는 절반이상이 일본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전에 와서 EXPO현장을 보고 동학사, 속리산, 현충사, 공주, 부여, 서산 등 많은 주변관광지를 돌아볼 외국손님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한국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분들이 어떻게 쾌적한 차내의 여행분위기를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한국은 일본보다더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의 찬란한 일본문화를 전수시켜준 백제문화의 원류라고 하는것을 느끼도록 할 것인가, 친절하고 예의바른 한국국민들의 인상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이것이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EXPO를 놓고 각계각층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운송문제, 사람의 수송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하게 될 택시의 문화, 택시승차문화를 어떻게 민주화시키고 선진화 시킬것인가, 하는것이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 회사를 훌륭하게 이끄시고, 또 지난해 그렇게 어려웠던 과정에서도 이 자리에 계시는 사장님들께서 잘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과 훈화를 통해서 큰 어려운 문제없이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이 중요한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 금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는 택시업계가 노사간에 갈등도 대화로 풀고, 또 새로운 선진승차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 사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한번 직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것이 첫번째 과제입니다.

두번째는 이제 새정부가 이달 25일이면 출범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세기동안 기대하던 순수 문민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문민정부야 말로 과거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정선거시비, 공명선거시비등으로 해서 정통성에 관한 문제가 증폭이 되고, 이것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학생에 이르기까지 큰 정치적인 변수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부는 그런 부담이 전혀없는 순수한 민간정부입니다.

그 정부가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전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의식개혁을 통해서 한국병을 퇴치하고 선진국을 향해서 모두 열심히 뛰자고 하는 정책적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힘만 가지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회 각계각층,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지도층인사 여러분께서 몸소 실천해 주시고 행동에 옮길때 기사들이 따라오고, 기사가족이 따라오고, 우리 농어민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지도층의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50, 60을 넘으신 장년층의 사장님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50년을 한번 회상을 해보십시오.

일제말에 나라잃은 설움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6.25의 동족상잔의 처절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5월이 오면 보리고개 때문에 대다수 농어민들이 어렵게 지냈던 그 가난했던 시절, 다 경험을 했습니다.

60년대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0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계각층 사람들이 땀흘리고 노력한 보람으로 이제 우리는 머지 않아서 국민소득 8,000불을 넘어 10,000불 소득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너무 쉽게 지난날을 잊는것이 아닌가, 집을 갖게 되고 자동차를 갖게 되고 먹고 살만큼 여유를 갖게 되니까, 이젠 지나간 가난했던 세월,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잊고 실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각계각층에, 공직사회내부에서 부터, 기업내부에서 부터 모든곳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서로 다 기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이에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까지도 우리를 바짝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가장 큰 목표가 남북통일이고, 둘째는 번영하는 나라,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통일문제는 이제 내외적으로 많은 여건들이 성숙이 되고 있어서 빠르면 금세기내, 아니면 2000년대 초까지는 우리의 통일이 성취되지 않겠는가, 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경제문제 만큼은 쉽게 되는것이 아닙니다.

선진국 수준의 꿈은 이제 우리가 지난 연대동안 고생해서 벌어들인 이 기틀을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튼튼히 하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의식의 대전환이 없이는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요즘 신문을 보면 1억원을 애들 용돈처럼 생각하고 자녀들을 부정입학시키는 사회지도층의 인사,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있을때, 어떻게 그 사회가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화감을 주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한국적인 부조리 이것이 바로 우리 정신적인 혁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수업계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업을 하시지만,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난날 고생했던 두대, 세대, 네대 가지고 어렵게 직접 운전 하시면서 영업을 하시던 그 시절을 다시한번 회상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가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은 저희와 같이 검토를 하시면서, 금년 한해 새롭게 출발하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충청남도 운수업계도 새로운, 한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서 모든 회원들이 신호균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뜻을 모으고, 어려운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지혜를 나누는, 그리고 보람있는 한해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다시한번 그동안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또 대중교통수단을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축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2월 12일

## 자유민주주의를 이끄는 선도적 조직

오늘 새봄이 오는 길목에 서서,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회장 이·취임의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이임하시는 신흥식 회장님께서는 감사의 뜻을, 그리고 새로이 취임하시는 김고성 회장님께서는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4년 한국반공연맹 도지회 결성 이후, 30년동안 자유민주체제 수호와 국가안보에 대한 도민의지를 결집해 온 자유총연맹 임직원 및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임하시는 신흥식 회장님은 지난 89년 자유총연맹의 대전직할시 분리 운영에 따른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시어, 지난 3년간 도지회의 원활한 운영에 헌신하여 오셨으며, 특히, 불우이웃돕기와 충남발전협의회 참여등 재임기간중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는 각박한 이 사회에 진정한 봉사정신을 일깨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취임하시는 김고성 신임 회장님은 충남도의회 부의장으로 의회를 훌륭히 이끌면서 장학사업, 체육지원 등 많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 오시는 분입니다.

이제 자유총연맹 조직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자유 시민정신 함양과 통일에 대한 지방적 의지를 이끌어 가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반세기동안 국가안보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의 변할 수 없는 이념이며, 지도자들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산치하에서 그 실체를 직접 체험하고 고통을 겪었던 우리 민족이었기에, 반공을 국시로 했던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작금의 세계는 이데올로기 분쟁이 사라지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자유수호의지와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는 공통된 인식입니다.

특히 민주화의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의지가 다소 둔화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속에서,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의 역할이야말로 오히려 이 시기가 더욱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회장님을 정점으로 자유총연맹가족 모두가 새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시민운동의 전개는 물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비하는 정예화된 조직, 자유민주주의 신장의 선도적인 조직으로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임하시는 신홍식 회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함께, 김고성 신임 회장님께서서는 우리의 큰 기대와 함께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정부 출범의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충남발전 원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충남 도정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유총연맹 가족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2월 16일

## 지역의 역량은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

오늘 영예의 수상을 하신 향토예비군부대와 기관,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향토부대와 예비군 지휘관 여러분, 기관장님, 그리고 경찰 지휘관과 방위협의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고장 대간첩대책 지휘관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안보와 지역안정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향토방위와 주요 보안시설 방호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안정과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향토사단 장병 여러분과 경찰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200만 도민과 함께 치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작금의 국제정세는 동서냉전체제가 무너진 대신, 종교와 인종차별로 겪는 갈등과 반목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라크 사태, 유고연방 내전과 그로아티아 공화국의 분쟁등, 힘의 논리에 의한 국지전의 가능성은 어느때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적화통일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최근 북한은,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어왔던 남북 대화창구를 일방적으로 닫아놓고, 「핵」 사찰 거부와 그들의 헌법에 4대 군사노선을 명문화 하는 등, 오히려 대남무력 적화통일 야욕을 노골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정세를 감안할때 우리의 안보의지를 굳게 결집시키고, 전후방에 걸쳐 완벽한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더 나아가 민족통합, 민주적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첩경이라고 확신합니다.

대간첩대책 지휘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 민족통합과 번영의 연대를 불과 7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새정부의 출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통일의 시대, 번영의 연대를 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떠한 힘과 역량을 키워 내느냐에 따라 2000년대의 우리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국력이 이만큼 성장하고 북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것도, 어떠한 여건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위역량을 길러왔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역량 또한 누가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지역에 사는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은 지리적으로 후방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 간첩침투가 있었고,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취약지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오늘날 전쟁의 개념이 전후방이 없는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고, 3군본부 등 국가 주요 시설이 있는 우리 지역 방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방위는 비단 군·경만의 임무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주민의 단합된 힘과, 유비무환의 태세로 뭉쳐있는 향토방위 의지에 의해서 지역방위 역량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외침에 대항했던 충절의 역사를

가진 고장답게, 우리 충남에서 부터 확고한 지역안정으로 통일의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국민화합과 사회 기강을 해치는 어떠한 요소라도 지역 스스로 슬기롭게 대처하여 신한국 건설의 영예로운 대열에 혼연히 참여합시다.

그동안 향토방위와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대간첩대책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오늘 북한의 대남 공작 실태와 대비정규전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국가안전기획부 대전지부와 32향토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2월 18일

##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도시

삼시도 주민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내빈여러분!

오늘 우리 삼시도민의 오랜 숙원인 내연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훌륭한 발전소를 준공하기까지 정성어린 노력을 기울이신 한국 전력의 기술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삼시도주민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36개의 유인섬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11개섬만이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을뿐, 나머지 25개섬은 영세한 자체발전시설을 통하여 전기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경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하루에 서너시간 정도의 제한송전을 함으로써, 섬주민의 생활과 사업에 적지않은 불편을 주고있음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섬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농어촌 전화축진법을 개정하여 50호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섬을 대상으로 대형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에서는 이곳 삼시도에 맨처음으로 내연발전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이제 24시간 송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주민여러분의 불편이 해소되게 되었고 육지주민과 다름없는 문화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삼시도 주민 여러분!

이제 삼시도는 서해의 외롭게 버려진 고도가 아니고, 올해부터 본격화될 서해안개발과 함께 서해안국립공원, 호도, 외연도로 이어지는 관광벨트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많은 불편을 인내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연발전소의 준공을 계기로, 그리고 “안정속의 개혁과 변화”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차기정부의 새 출범과 함께, 신한국 건설의 험찬 대열에 참여하여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고루 발전된 변영의 고장, 넉넉함과 인정이 가득찬 삼시도의 소망은 기필코 성취될 것입니다.

지난 연대의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주민 모두가 묵묵히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기몫과 책임을 다하여 오늘의 중진국을 이루어왔듯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변영의 신한국건설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발전과정의 고통과 어려움을 서로 나누어 지는 지혜와 창조적인 힘을 모은다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발전소의 준공을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삼시도 주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치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2월 22일

##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기업

친애하는 청양군민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이 고장출신 지방의회의원님과 내빈 여러분!

오늘 새봄이 오는 길목, 새정부가 출범하는 역사적 문턱에서, 칠갑농산공장의 준공식에 참석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대적 시설을 고루 갖춘 칠갑농산공장이 준공되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내하면서, 노고가 크셨던 이능구 사장과 임직원여러분, 그리고 성원해주신 이 고장 주민여러분에게 치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를 소중히 여기며 천하의 대본으로 삼아왔으면서도, 식량자급을 하지 못하고 매년 불경기마다 주린배를 참아가며 고생하던 지난 시절, 그게 바로 불과 10수년전의 일입니다.

통일벼등 다수확신품종의 도입등 부단한 증산시책에 힘입어 이제 쌀자급을 성취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있는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의 이농으로 노동력이 모자라고 각종 영농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영농소득이 악화되는데다, 우리 농산물시장에 대한 선진국들의 부단한 시장개방압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아픔을 덜어주고, 우리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향후10년간 42조원을 투입하여 농업구조개선10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농민여러분의 강인한 신념과 의지입니다.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단순경종농업에서 농사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농·상업농업으로 전환시켜야 할 때임을 직시하여 새농사기술을 익히고, 소득이 높은 작목을 적극 도입하여 경쟁력이 높은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민여러분의 열정을 집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지난 89년부터 그동안 23개소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오늘 준공을 보게 된 칠갑농산공장도 바로 이 고장에서 생산되는 쌀과 메밀, 도토리, 감자등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과 주민고용을 동시에 증대시키기 위한 농수산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아무쪼록 “칠갑농산공장”이 우리고장 농민과 농촌에 활력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진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장임직원들께서도 더욱 깊은 연구와 노력으로 우수한 식품,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고부가가치상품을 생산하는 한편,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는 기업, 지역주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건실한 성장발전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치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2월 23일

## “EXPO를 통한 지역발전 전기마련”

먼저 엑스포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수고가 많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미국 「시카고」박람회에 우리나라가 첫 참가한지 100년만에 개발도상국가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의의와 배경에 대해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동경올림픽 이후 오사카, 쓰쿠바 박람회등을 개최하여 새로운 국력신장의 계기가 마련된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간 경제부흥을 이루기는 했지만, 지금이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엑스포가 그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대전엑스포의 주제는 21세기를 향하여 세계가 「인류의 미래, 문명, 복지」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길을 찾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이며,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엑스포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 들어오면 우선, 엑스포를 하는 고장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88서울올림픽 대회에서와 같이 엑스포를 상징하는 대형 애드벌룬, 홍보 시설, 입간판, 엑스포기 군집계양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할때는 가급적 민간단체, 출향인사, 기업인들과 협찬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처음 들어오는 도로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도로 안전시설 개·보수, 안내 표식판 정비, 산사태 예방등에 철처를 기하고, 새롭게 확·포장한 도로의 절개지등에 뒷손질을 잘해서 낙석 등으로 교통이 두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지나 엑스포현장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각종 안내판을 정확한 규격과 국제화된 표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손님맞이 준비와 관련해서는 엑스포를 통해 충청인의 친절성이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숙박업소 전 종업원에 대한 단정한 외양지도와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방, 화장실, 침구를 청결히 하고 온풍타월등 현대식 시설을 확충하기 바랍니다.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같은 상품은 어느지역에서나 같은 가격을 받도록 하며, 가급적 선물용 소형 토산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영문 안내서를 병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점, 이·미용업소등接客업소, 관광업소, 토산품 판매업소 종업원에 대한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고, 호텔등接客업소에 우리 도의 문화, 관광소개 안내책자를 반드시 비치하기 바랍니다.

백제문화제에서는 시군의 우수한 민속행사를 하루씩 재현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가령 은산별신제, 부여호상놀이, 기지시줄다리기, 봉기풍어놀이 등이 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의 무극 공연 계획의 보완도 필요합니다.

10월 5일 충남의 날 행사시 공연하는 「이순신 장군 무극」은 전체 관중을 사로잡기 위해 공연 인원을 늘리는 문제, 다중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

출하는 문제, 막간에 흥을 돋구는 충남특유의 사물놀이를 실시하는 문제등,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획극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타 시도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위생과 방역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음식과 음용수, 조리과정에서 깨끗한 위생상태가 유지되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여름철 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조립식 토산품 판매장 문제는 공주마티재, 천안~온양간 국도변등에 차량이용 관광객이 내려서 사고 싶은 호기심이 나도록, 특색있는 색상과 디자인을 살린 조립식 토산품 판매장의 모델을 개발, 시군에 시달하여 설치토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버스와 택시 승강장이 거의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자치단체별로 색상이나 디자인이 모두 다릅니다. 천안, 공주, 온양, 부여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도시의 택시와 버스 승강장을 대전시의 예를 참고하여 국제 감각에 맞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농촌의 버스 승강장도 지역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모델을 개발,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엑스포 기념동산」조성과 국화전시장 설치는 주요 도로변 절개지, 공터, 폐도부지에 라이온스, 로타리, 의사회등 민간단체의 후원을 받아 「엑스포 기념동산」을 조성하고 EXPO회장앞 고수부지등에 엑스포 기간중 국화전시장을 설치하여 대대적인 전시회를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엑스포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엑스포를 계기로 우리의 개발을 한차원 높여갈 수 있도록, 오늘 보고한 모든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실의 엑스포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종합팀을 편성해서 추진상황 점검·확인은 물론 관광안내 서비스역할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도정과 관련해서 몇가지 지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은 충남개발의 첫해입니다.

군장지구, 관창지구, 석문·송악지구등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해안 개발의 원년」이며 정치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의 원년」이고, 문화적으로는 금년 6월에 정식 고시되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백제 문화개발의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개발의 문제점으로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어 산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우리지역 개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X축도로, 동서간 도로등 도로망의 확장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개통, 장항선 복선화 완료시에 안면도의 민자 유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이 되면 개발의 이익을 우리지역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휴양·위락시설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투자상담실 설치입니다.

「지방 자치시대를」를 맞이해서 경영행정의 감각위에서 개발업무를 수행바랍니다. 개발담당관실에 「투자상담실」을 설치하여 국내의 우수한 업체 유치 활동과 함께, 중국등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하는 해외기업의 투자 상담을 담당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개발과 관련한 보상의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에 파생하는 공해, 어민피해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중재하고 보상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선적불명의 어선피해시 피해어민에게 우선 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선보상을 해주고 가해선박이 발견되었을때 구상하는 제도, 매연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조직신설등을 검토해서 개발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안면도 송림지역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안면도 송림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이곳에 산불 발생시에는 우리 행정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간벌계획을 세워 잡목을 제거하는 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3m로 되어있는 임도의 폭을 넓혀 수간이 서로 닿지 않도록 하는등 산불 예방과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칠갑산 도립공원의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겠습니다.

용역 중간보고회시 군의원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종합적인 관광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검토와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국 출범과 관련해서 「안정속의 변화와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개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내무공무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과 정부, 모두가 다같은 인식으로 안정된 사회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을 깨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발전적인 변화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그동안 비판세력의 표적이 되어왔던 정부의 정통성 시비문제가 사라진 문민정부에서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새 정부에서는 과감한 개혁 조치들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도부터 도정의 구석구석에서 개혁과 쇄신과제를 미리미리 발굴하여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행태의 쇄신과 제도개선으로 「뭔가 달라졌다」하는 인상을 보이도록 하고, 뼈를 깎는 과감한 자기반성과 개혁으로 새로운 시대의 공직풍토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는 뜻깊은 시기에 엑스포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등, 금년도 우리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제때에 시행되어 보람찬 성과를 주민들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긴장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새정부에 대해 거는 국민의 기대가 우리공무원의 모습에서 확인되고 이러한 노력이  
민간단체에까지 확산되도록 가일층의 분발을 당부합니다.

1993년 2월 26일

##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재향군인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재향군인회 가족 제35회 정기총회의 자리에 나와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우리 도민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해오신 한만우 회장님을 비롯한 재향군인회 가족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는 김영삼 14대 대통령께서 취임하심으로써, 우리나라는 신한국건설과 민족 선진의 새장을 펼칠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랜 정치경험을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연설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에 다같이 참여해서 자랑스런 한민족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변화와 개혁,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제를 이끌 국정운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봉하는 나라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값비싼 전쟁도 치렀고,

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기적의 신화를 일으킨 민족역량을 가꾸어 냈습니다.

자유민주체제를 선택한지 반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피를 흘리며 지켰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침략전쟁을 몸으로 막고 저지했던 재향군인 회원여러분, 유명을 달리하신 순국선열들의 희생의 바탕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킨 자유의 힘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힘은 20세기가 가기전에 반드시 민족통일의 댕가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북한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통일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진정한 민족의 자유와 평화는 7천만 한겨레가 한울타리안에서 다같이 그 기쁨과 보람을 누릴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300만 충청인 모두가 통일에 대한 지방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40만 재향군인회 가족여러분께서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재향군인회 가족여러분의 활동범위도 과거 회원복지나 국가안보에 대한 계도 활동 차원을 넘어서, 장학사업과 사회 봉사활동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확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한만우 회장께서 이끄는 재향군인회가 지역민들의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단체로 거듭 발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이 자리가 신한국 건설과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다같이 함께 뛰는 회원여러분의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2월 28일

## 개교당시를 회상하며

18회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밭중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18회 동문 여러분에게 지면을 통하여 인사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잊지 못하듯, 모교를 졸업한지 어언 4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한밭중학생 시절의 그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지워지지 않는것은 창설 중학교의 첫 졸업생이었던 기억이 너무나도 인상깊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1950년 당시 한밭중학교의 전신인 대전공업중학교는 학제 개편에 따라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전쟁이 끝날무렵 한밭중학교로 다시 그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당시 누구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었듯이 한밭중학교는 명칭만 중학교이지 변변한 교실도 없는 학교로 운영되었습니다.

보리밭이랑에 가마니 깔고 노천 수업을 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허름한 공장 창고를 빌려 마루바닥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학생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고,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힘에 넘쳤습니다.

누구하나 불평하는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청운의 꿈을 품었던 야망과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라는 진취적인 기상이 넘쳤고, 또한 당시 우수한 학생들이 한밭중학교로 몰려들었으며, 서울에서 피난온 우수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받았기에 한밭중학생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은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임후 제1회 졸업생 자격으로 모교를 방문하여 기념 식수를 했을때, 훌륭한 교실, 잘 정돈된 교정을 바라다본 감회는 남다를 수 밖에 없었고, 금석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밭중학교는 그로부터 중부권 명문학교로서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국가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중진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대하여 큰 긍지를 가져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타 학교에 비하여 한밭인으로서의 응집력이 약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교에 대한 애정, 동문, 동기생들간의 끈끈한 정이 더욱 두터워질 수 있는 교감이 이루어지고 발전적인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밭중학교의 발전과 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93년 3월



1993년 3월 2일

## 새정부출범과 우리의 결의

오늘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을 받으신 이은규씨, 그리고 이달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상을 받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지난 25일 대통령 취임행사에 초청된 500여 인사들을 정중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여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합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5일, 실로 36년만에 탄생된 문민정부의 장엄하고 결연한, 의지에 찬 새정부의 출발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강력히 제창하셨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의미는 만연된 국가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 정상을 회복하고 「순리와 상식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정체시키는 나태와 타성, 또 가치관의 전도와 이로인한 정신적 패배주의를 타파하고 혁신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신한국의 비전은 성숙한 민주사회,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가 된 민족으로서의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 3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국정개혁의 과제는 첫째, 부정부패의 척결, 둘째는 경제의 회생이며 셋째는 국가기강의 확립입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성역없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통해서 사회전체에 팽배하고 있는 무력감과 패배주의를 추방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그리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신바람나게 일하는 풍토, 다시 말하면 신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기강 확립에 힘쓰면서 부정부패와 범법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통치자의 의지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민족통일 시대의 실현을 약속하셨습니다.

신한국의 궁극적인 모습은 세계속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선진 통일조국의 건설에 있음을 지적하고 반드시 금세기안에 민족통일의 과업이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면서, 통일 추진과정에서 민족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입장도 아울러 피력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당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한국으로 가는 길에는 너와 내가 없으며,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고통의 분담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심과 아울러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참을 호소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갈 변화와 개혁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내하면서 신한국창조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의 철학과 의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도정 시책화해서 빈틈없이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여러가지 사항들을 결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이는 역사에 대한 다짐이며 또한 도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 새로 태어난 공직자임을 명심하고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늘 우리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강조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그 척결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정부패라고 하는 말이 우리 관료사회의 대명사처럼 붙어다니는 그러한 명예롭지 못한 현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을지 모르는 부정심리, 부패심리를 우선 나부터 척결하는데 비장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강조되고 부정부패 척결이 강조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건국후 반세기가 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공무원들이 선량하고 열심히,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파렴치한 공무원,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공직관이 흐트러진 공무원들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당하는 이 불행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가슴아프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 어두웠던 시절, 암울했던 시절에 오직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이었는가, 번영된 조국·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신명을 바치는 우리공무원들의 애국심, 애향심을 그 누구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이라 하면 부정한 수입이나 챙기는 사람처럼 우리를 호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질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겸허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공직자의 바른 생활이, 공직자의 바른 말과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한번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이시간 부터는 그야말로 변화하는 사회, 개혁되는 국정의 최일선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1만 5천여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경제에 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이르기까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와 고충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찰하고 또 지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이 겨우 6,000불을 넘어선 중진국가 중에서도 선발국가라고 하지만, 우리를 바짝 따라오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경제회복을 국정의 제일과제로 두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좌절하거나 안주할 수가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고 활력화시켜서 우리가 소망하는 선진국 경제대열에 기필코 진입시켜야 할 역사적인 책임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고 있습니다.

흔히 경제하면 중앙의 경제부처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경제의 활력화는 우리 지방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공장의 입지선정, 건축허가, 자금·기술지원, 인력의 수급, 제품의 판로 알선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업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도정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2,700여개의 전공장이 불황을 모르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도가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물가안정 문제도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쓰신 보람으로 전

국에서도 가장 수범적인 도로 평가를 받았습시다마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금년 봄 물가가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역물가 특히, 공공서비스 요금, 대중요금등의 안정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물가의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기강의 확립입니다.

우리는 아침저녁으로 도처에서 가치관이 전도된 모습과 혼탁한 질서를 봅니다마는 누구나 개탄을 하면서도 솔선수범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주차질서, 노상적치물, 버려진쓰레기, 폐기물등 지켜지지 않는 교통질서, 상거래 질서 이런 모든것이 사회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분야별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기강 확립운동에 우리 도정이 앞장서서 지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주민을 독려하면서 일그러진 사회기강이 빠른 시일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어 시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생활정치라는 말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우리도 생활행정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일상 시민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또한 불편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가, 밤거리의 어둠을 밝혀주는 가로등 하나, 방법등 하나, 또 시장의 공중화장실 하나, 변두리 지역에 승객이 대기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하나, 하수도등에 관심을 갖고 행정을 수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행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모든 국민들에게 편의로운 생활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지방행정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충절, 선비, 예의의 「도민정신」을 생활화하여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도 다짐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충남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충절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충청인의 정신중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 부모에 대한 극진한 효심, 충효의 고장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상징되고 있습니다.

충효정신이 과연 오늘날 어느 정도 생활의 규범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말이 충효의 고장이지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어떤 점에서 흉악범같은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정신적인 지주, 즉 충효의 고장, 충효정신을 선양하는데 도정의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충청남도민들이 또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선비정신입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비판을 받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려웠던 이조500년사를 꾸려 오면서 그 선비정신, 절의정신, 예의를 숭상하는 정신, 이런 기품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신,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고한 선비정신이 우리 충청남도의 차존심과 명예를 지켜온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이런 선비정신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의를 숭상하는 정신입니다.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우리 충청도는 많은 위인 열사들이 배출되고 출중한 효자, 열녀, 충신들이 배출된 고장, 예의로 대표되는 고장이 바로 우리 충청남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충청남도 상황이 과연 예의로운 고장으로 수범적인 도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따르게 마련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세가지 충효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우리 충청남도의 긍지이자 보람인 충청인의 정신을 현재화시키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행정개혁의 추진입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제도적인 불합리한 점, 운영상의 문제점,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과감히 쇠신해서 새로운 국정개혁의 기치아래 모든 분야에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정, 시·군 행정, 읍·면 행정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전근대적인 불합리한 요소, 관행, 비민주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쇠신해서, 그야말로 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밝고 깨끗한 주민을 위한 능률·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인의 근본적인 자세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결의도 하고 다짐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다짐이나 결의가 구호나 형식에 그치지 말고 행정인으로서의 어떤 지표가 되고 실질적인 행정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작은 일부부터 우리의 마음자세, 다짐을 고쳐가면서 과감하게 쇠신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3월입니다.

3월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는 달입니다.

어제도 독립기념관에서 제74주년 3.1절 기념행사를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기념식을 맞아서 느끼는 것은 그 위대한 선인들의 민족자결정신, 물산 장려운동, 민족자존을 일깨우는 그 기본정신,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에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후인으로서 선인들에게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제의 질곡에서 해방되기 위한 그러한 민족의 함성이라고 3.1절을 평가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바탕에 숨어있는 우리 민족자존의 정신, 민족자결의 정신, 물산 장려운동 이런 것들이 모두 그 당시에 벌써 오늘을 내다보고 3.1운동 독립선언서에 담은 선인들의 지혜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3월달은 모든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동토가 풀리는 계절,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이 계절은 바로 처음이며 출발을

의미합니다.

나무도 심어야 되고 또 농사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건설사업들을 일제히 발주해야 하는 많은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번 의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9,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정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예산에 담겨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제때에 착수가 되고 또 그 사업이 소기하는 성과를 실기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풍성한 성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3월은 정녕 일하는 달, 또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달라진 우리 공직자들의 의연한 모습과 깨끗한 행정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는 그런 도정이 될 수 있는, 밝고 힘찬 3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직자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해 두거니와 여러분이 오늘 결연한 자세로 결의해 준 이 내용들이 모두가 다 절실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여기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결의한 내용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3월달을 보냅시다.

1993년 3월 4일

## 충남발전 구상에 진력했던 시기

친애하는 15,000여 공무원여러분, 존경하는 200만 고향도민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고별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 불행했던 연기군사건에 휘말려 좌절과 실망, 그리고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누지 못했던 매우 암울한 시기에 제27대 충청도지사의 중책을 맡고 부임한 이래, 오늘로서 다섯달 보름을 맞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민여러분의 정성어린 협조, 그리고 공무원동지 여러분의 성실한 도움으로 재임중 대과없이 도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 하면서, 그동안의 협조에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0년대초 어둡고 가난했던 시기에 청운의 꿈을 가지고 충청도에 첫발을 디딘지 30여년간, 이 기간은 우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소중한 세월이었습니다.

60\$ 남짓한 국민소득이 7,000\$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어, 극동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이 세계 15대 교역국가로, 세계속의 한국으로 국력과 국위가 크게 신장된 민족중흥의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랑스런 30년의 개발의 역사를 직접 일구고 가꾸어온 주역인 저와 동지들이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반백의 머리와 주름진 얼굴로 도정사의 뒤편길로

자취를 감춰야 한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무상함과 함께 만감이 교차하는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늠름하고 패기에 찬 후배공무원 여러분을 상기하면 한결 마음이 가볍고 든든해집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9월 고향도정의 증책을 맡으면서 저는 제 공직 생애의 마지막 봉사 기회로 알고 신명을 다해 우리 충남 도정의 발전을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도민에게 믿음을 주고, 도민으로부터 믿음을 받는 신뢰행정을 강조했고, 지역간, 계층간 균형 발전의 실현을 주창하면서, 충청인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정의 기본방침으로 제시한 것을 상기합니다.

이러한 기틀위에 금년을 충남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진 우리 충남발전의 눈부신 발전을 구상하고, 청사진을 마련하는 시기에 자리를 떠나게 되어 아쉬움도 있지만, 훌륭한 인품과 탁월한 행정경륜을 겸비한 후임 이동우지사에게 제가 못다한 짐을 맡기게 되어 한결 마음이 가볍고 기대가 큼니다.

비록 다섯달 남짓한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정통 지방행정인의 품위와 자세를 견지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다소 굴절되었다고 느껴진 우리 도정을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자위하면서, 못다한 산적한 과제를 후임 이동우지사에게 맡기고 이제 여러분의 결을 하직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국민적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새정부의 개혁 의지와 신한국 건설의 국민적 과제를 실현하는데, 이제는 우리 충남인 모두가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참여할 역사적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새 역사의 물줄기를 오늘에 사는 우리 충남인이 앞장서 바로 이끌어야 할 소명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방관자가 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조류에 끌려다닌다면 눈앞에 다가오는  
충남개발의 진운은 우리를 외면하게 될것입니다.

이임하면서 우리 공무원과 도민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15,000여 공무원 동지여러분!

바야흐로 지금 이땅엔 신한국 건설의 대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우리 지방행정 공직자가 바로 이 위대한 대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처럼 우리앞에 다가온 역사의 호기를 새충남 건설의 도약대로 삼아  
「번영하는 충남, 운택한 고장」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거듭  
그동안의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임 인사에 갈음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 洪善基道知事演說文選集

---

---

1994年 月 日 印刷

1994年 月 日 發行

發 行：忠 清 南 道

編 輯：公 報 官 室

印 刷：協 成 文 化 社

☎ 627 - 8 8 9 3

---

---

〔非賣品〕



CHUNG CHEONG NAM - DO



\*AM000982\*